

이름없는 이들이 다져가는 겨레사랑의 자리

# 우리말 우리얼

제 92 호 2017년 4월 3일

## ◀ 차례 ▶

(새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말과 한글을 살리고 빛내라 .....	2
국어기본법을 어긴 통일부 공문서 .....	4
들온말 받아들이는 잣대 -외래어 규정- 김정섭 .....	6
우리네 말글살이 현실 김정수 .....	10
중국에서 지내면서 조연년 .....	16
알차고 넉넉히 자라야 할 한국말 살림 최종규 .....	18
농사말 바르기 쓰기 이오덕 .....	25
‘우리말 풀이씨’의 힘 문영이 .....	30
아흔세 가지로 틀리게 쓰는 낱말 ‘모습’ 미승우 .....	40
토박이 마을과 땅 이름 권순채 .....	57
한국 토종 이야기 홍석화 .....	79
이런 책을 읽지 맙시다 이정우 .....	88
알립니다 .....	98

**펴낸 곳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화: 010-4715-9190(이대로)

**주소 :** 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356번지 이오덕학교 / 전화: 043-844-6622

**전자우편 주소:** 25duk1@daum.net, idaero@hanmail.net

**누리집 주소 :** 우리말 우리얼 <http://cafe.daum.net/malel>

[새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 우리말과 한글을 살리고 빛내라

이제 시민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5월 9일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할 것이고, 두 달 뒤엔 누군가 새 대통령이 되어 나라살림을 맡게 될 것이다.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겨레와 나라의 얼과 정신을 담는 그릇인 **우리말**과, 자주 문화 창조 도구인 **한글**을 살리고 빛내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밝힌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와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가 뿌리내리면서 온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어 국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날 중국 한문을 섬기던 조선시대나, 한자를 혼용하던 일본 강점기 때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면 시민 촛불 혁명은 꿈도 못 꿀 일이다. 우리 자주문화가 꽃피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도 쉬운 우리 말글로 국민수준이 높아져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지난날 힘센 나라인 중국 말글을 섬기던 언어사대주의가 뼈 속 깊게 박혀서인지 요즘 중국 한문 대신 미국말 섬기는 바람이 불어 우리 말글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기다. 우리말이 몸살을 앓으면 우리 겨레 얼이 몸살을 앓고, 우리말이 죽으면 우리 겨레도 죽고 사라진다. 중국에 청나라를 세우고 땡땡거리며 살던 만주족이 오늘날 제 겨레말과 함께 사라진 것이 그 증거다.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을 가지고 남의 말글을 더 섬기는 것은 복 떠는 것이다.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그 겨레나 나라의 말글이 빛나면 그 겨레와 나라도 빛났다. 중국은 한문과 함께 동양의 중심 국가가 되었고, 영국이 영어와 함께 일어나 세계 강국이 되었다. 일찍이 우리 세종대왕도 우리 글자인 한글을 만들고 우리 겨레를 일으켰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도 “우리말이 오르면 우리 겨레도 오른다.”면서 우리말과 한글을 살려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원한 독립된 문화국가 건설도 우리말이 살고 한글이 빛날 때 이루어진다. 우리 말글은 우리 자주문화 창조 도구요 무기이며 밑거름이다. 또한 바르고 쉬운 말글살이는 경제와 과학 발전, 남북통일과 국민 소통, 국민 교육의 첫걸음이고 밑바탕이다. 우리 말글을 살리고 빛내는 일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이 함께 힘써야 할 일이다. 또한 외국인이 해줄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새 정권과 대통령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본받아 우리말을 살리고 한글을 빛내어 쉽고 바른 말글살이가 뿌리내릴 정책을 힘차게 펼쳐 주길 바란다. 그래서 강대국에 짓밟히고 끌려 다니지 않는 튼튼한 자주 문화국가를 건설해 후손에게 물려주자.

2017년 3월 25일

한글과 우리말을 사랑하는 국민들

## 국어기본법을 어긴 통일부 공문서

지난 1월에 통일부가 내(이대로)게 보낸 전자편지에서 쓸데없이 “北, 順, 下, 反, 現, 美, 對南, 南” 같은 한자를 섞어서 쓴 것을 고른 것이다. 이것은 공문서는 한글로 쓰게 된 국어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자를 조금 썼는데 어떠냐고 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말글살이 모습은 한글과 법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공무원부터 한글을 사랑하고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또 공문서는 국민 누구나 읽고 알아보기 쉽게 써야 한다.

---

### 2017년 「北신년사」 분석

○ 연설문 골격 및 내용은 경제사회→정치군사→대남→대의 順으로 진행

④ 남북관계에 원론적 입장 下에 향후 국면을 겨냥한 공세적 태도 시사

-△이례적으로 VIP 실명을 언급하고 △‘反통일 세력 분쇄’ 등을 주장한 것은, 現우리 내부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

\* “現남북관계를 방관하면 어느 정치인도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 등

## 대북정책 전환 압박

○美대선 및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구체적 대외정책 전략은 밝히지 않았으나,

---

## 2016년 및 2017년 對南분야 비교

- 美대조선적대시정책·평화협정 체결 제의 외면
- 南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 호소와 성의있는 제의 외면
- 제도 전복 기대 下 불순한 반공화국 모략소동·적대 행위 중지

## 들온말 받아들이는 잣대 -외래어 규정-

김정섭 우리모임 전 공동대표

### 제1장 - 들온말 뜻매김과 들온말 적기 (외래어의 정의와 표기법)

제1항 우리말의 이름은 배달말(한말)이고 배달겨레말(한말)과 들온말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제2항 들온말은 다른 겨레말에서 이 법에 따라 우리말로 받아들인 말을 일컫는다.

제3항 들온말은 본디 어느 겨레말이든 들온말 맞춤법에 맞게 한글로만 적는다.

다만, 들온말 맞춤법은 따로 마련한다. (외래어 표기법)

### 제2장 들온말과 버릴 말로 가려 내야 할 낱말 무리. (외래어 사정 대 상 단어)

제1항 온 누리 모든 겨레말 가운데서 우리 말글살이에 들어와 쓰이는 말.

제2항 차이나(중국)와 니혼(일본)에서 들어온 한자말과 우리가 만들어 쓰는 모든 한자말.

제3항 위 1,2항 가운데 우리말에 한뜻말이 없거나 우리말로 새로 만들기 어려운 말.

제4항 위 1, 2, 3항 가운데서 한뜻말이 많은 한자말.

보기 \* 강요 = 강권. 강용. 강작. 강청 따위

제5항 니혼(일본)에서 잘못 뒤친 말 가운데서 우리가 들여와 쓰는 한자말.

보기 \* 실낙원(잃어버린 낙원).

백조(고니). 춘희(라 트라비아타).

### 제3장 들은말 받아들이기 (외래어 사정)

제1항 들은말은 제바닥 본디 말 소리대로 받아들인다.

보기1. 나날 말 \* 라디오. 텔레비전. 버스. 오페라. 짜장면. 가마니. 우동.

보기2. 사람 이름 \* 모택동(마오쩌둥). 성길사한(친기스칸). 나파룬(나폴레옹).

보기3. 나라 이름 \* 미국(아메리카). 영국(잉글랜드). 불란서(프랑스). 독일(도이칠란트).

보기4. 고을 이름 \* 동경(도쿄). 북경(베이징). 나성(로스앤젤레스). 화성돈(워싱턴).

제2항 홀이름씨가 아닌 한자말은 우리 한문글자 읽는 소리대로 받아들인다.

보기 \* 비행기. 은행. 공장. 자동차. 운동장. 책상. 연필. 학교. 회사.

제3항 못입을 거쳐 이미 다듬어

진 말은 바뀐 소리대로 받아들인다.

보기 \* 담배. 고무. 껌. 조랑말. 가방. 냄비. 구두. 메주. 달구지. 양채. 과녁. 도둑.

### 제4장 들은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낱말 무리

제1항 겨레말과 한뜻말인 한자말은 버린다.

보기 \* 성좌(별자리). 행성(떠돌이별). 고채(고들빼기). 부어(붕어). 역할(구실). 일부(날짜).

다만, 겨레말과 뜻이 같은 여러 한자말 가운데서 한 가지를 들은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보기 \* 해 = 태양. (금오, 일륜, 화륜, 적아, 직오, 희현, 평실, 비륜, 요령, 구양.)

아버지 = 부친. (엄친. 대인. 춘부장. 엄친. 아부. 가친. 가부. 영존. 춘당.)

제2항 겨레말로 새말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한자말은 버린다.

보기 \* 사회생활(모듬살이). 화단

(꽃밭).

제3항 오늘날 말글살이에서 쓰이지 않고 앞으로 쓸 일이 없는 한자말은 버린다.

보기 \* 각주구검. 조위. 비륜. 일오. 협혁. 타랑. 통가. 박백.

제4항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한자말은 버린다. (동음이의어)

보기 \* 야로(冶爐=풀무). 야로(夜路=밤길). 야로(夜露=밤이슬). 야로(野老=시골늙은이).

제5항 겨레말과 소리가 같으면서 뜻이 다른 한자말은 버린다.

보기 \* 애매하다 = 잘못이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하다.

애매하다(曖昧~) = 아리송하다. 흐리마리하다. 흐릿하다.

제6항 우리나라나 니혼에서 한문글자를 짜깁기하여 억지로 만든 한자말은 버린다.

보기 \* 소주밀식. 피로회복. 원조교제. 신토불이. 미화원. 옥실원. 음수대.

제7항 니혼에서 서양말을 소리나 뜻으로 뒤쳐 쓰던 한자말은 버린다.

보기 \* 와사(가스). 낭만(로망). 초자(글라스 = 유리). 축제(페스티벌 = 잔치).

제8항 니혼에서 대용자로 쓴 한자말은 버린다.

보기 \* 굴삭기(굴착기). 기박(기백). 흠석(결석). 사체(시체). 순법(준법).

제9항 니혼에서 우리나라를 낮잡아 부르던 한자말은 버린다.

보기 \* 이씨조선(조선왕조). 이왕가(조선왕가). 부락(마을). 조선반도(조선. 한국).

제10항 우리말을 소리나 뜻을 따서 한문글자로 적은 한자말은 버리거나 한문글자를 벗겨낸다.

보기 \* 두태(콩팥). 백(아뿔). 도어(갈치). 침장(김장). 침채(김치). 도령. 동산. 생각.

## 제6장 들은말 가려 뽑는 모임 (외래어 사정 위원회)

제1항 들은말 가려 뽑는 모임을 <한글학회> 안에 둔다.



다만, 할 일과 짜임새는 따로 만  
든다.

제2항 말글살이에서 말이 흐르는  
모양새를 살피고 새로 들어온 다른  
겨레말을 모아서 이 법에 따라 받아  
들일 것은 들온말로 명토 박고 나머  
지는 버린다.

제3항 한 해 마지막 모임에서 그  
동안 받아들인 들온말을 갈무리하  
여 국어원, 교육부, 문화부에 보내어  
관보에 실게 하고 신문, 방송으로 널  
리 알린다.

붙임1. 이 법과 모임을 만들면, 맨  
먼저 이 법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  
에 올림말로 실린 한자말과 다른 겨  
레말을 살피서 들온말로 가려낸 말  
은 사전에 실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  
렇게 만든 우리말사전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아닌 글자는 쓰지 않  
는다. 이 일과 더불어 입말에서 쓰지  
만 우리말사전에 실리지 않는 겨레  
말을 찾는 일도 함께 한다.

붙임2. 사람, 책, 마을, 산, 강 이  
름이나 종교에서 쓰는 말과 역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을 나타내는 말  
은 우리말사전에서 갈라내어 ‘사람  
이름 사전, 책 이름 사전, 고을 이름  
사전 산, 강 이름 사전, 종교에서 쓰  
는 말 사전, 역사 사전’을 따로 만든  
다.

< 이 글은 오랫동안 우리 말글살  
이를 걱정하고 바르게 쓰는 길을 찾  
아오신 김정섭 선생님께서 만든 “들  
온말 받아들이는 잣대” 초안입니다.  
새로운 제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함께 생각하자고 올렸습니다.  
아울러 나라에서 이 규정을 정하게  
되길 바라고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웁긴이 이대로. >

들여다보면 볼수록 안타깝고 한  
심하고 달리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부조리가 이 모 저 모로 심각한 것

## 우리네 말글살이 현실

김정수 한양대 국문과 명예교수

이 우리네 말글살이이다. 우선 말의 군더더기가 너무 심하다. “처갓집, 양옥집, 국화꽃, 무궁화꽃, 전선줄, 철삿줄, 믹서기, 프린터기; 삼국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늙은 고목나무, 아직 미정이라, 피해를 입어, ...” 이런 현상은 주로 익숙하게 쓰는 한자 말과 그 밖의 외래어에 나타난다.

‘처갓’이 이미 집인 줄 몰라서 ‘집’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믹서’가 이미 도구인 줄 몰라서 ‘기’를 덧붙이는 것이 아닐 것이다. ‘피해’가 이미 해를 입음인 줄 몰라서 또 입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몰라서가 아니라 직감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들어온 지 오랜 한자와 한자말일지라도 우리한테 토박이말과 똑같은 정도로 잘 인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숭상해 왔고 서양 문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들에게서 온 말은 왜 우리한테 잘 흡수되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 사람들의 언어 의식이 너무 굳고 깨끗하고 남의 것을 배척하는 탓일까? 아니면 그것들의 껍질이 너무 굳고 질긴 탓일까? 아무튼 한자말을 포함한 모든 외래어의 일부 요소들이 토박이말과 흔히 겹쳐 쓰이는 현상은 우리네 말글살이를 그지없이 너절하게 만든다.

유식한 사람이 아니면 쓰지 않는 낱말 “자문(諮問)”은 요새 사전의 정의를 바꿔야 할 정도로 주객을 바꾸어 가고 있다. 묻고 배우는 것이

자문하는 것이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자문을 한다.”고 할 것을 “자문을 받는다.”고들 하니 주객이 바뀐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어 배우는 것이 “사사(師事)하는” 것이니까, “스승이 나의 사사를 받는다.”고 할 것을 “내가 스승의 사사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주객을 바꾼 잘못이다.

신문과 방송에서 이상하게 유행하는 낱말이 “반증(反證)”인데, 이것도 사전에서는 ‘어떤 것이 그르다는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건만 ‘어떤 것이 그렇다는 증거’ 곧 “반영, 증명”과 같은 말처럼 쓰이고 있다. 말품과 글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이다. 여기 드는 낱말들은 열의 아홉 사람이 이처럼 잘못 쓰고 있다. 나라의 국어 교육이 부실하고 개인의 공부가 모자란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사례도 한자말에 대한 전반적인 소화 불량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주제에 한자말과 토박이말이 나란히 있으면 한자말을 고급으로 치고 먼저 집어 쓰는 우리 한국 사람들, 토박이말이 엄연히 있어도 버려두고 서양말을 즐겨 쓰는 우리 한국 사람들. “집”보다 “댁”이 점잖고, “집사람”보다 “와이프”가 편하다. “펠리컨”은 알면서 “사다새”는 모른다. “전산학과”보다 “컴퓨터학과”가 더 유리하다니, “셈틀학과, 슬기틀학과” 따위는 상상도 못 하리라. “즈믄 해”를 삼킨 “천 년”이 지금은 “밀레니엄”에게 먹히는 중이다.

첫과에서는 본디의 이빨이 못 생겼거나 크게 상했어도 완전히 못 쓰게 되지 않은 한 굳이 보존하려고 애를 쓴다. 그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 박아도 본디의 이빨보다 더 좋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언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어도 생명체처럼 안팎의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구조물인 만큼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는 이물질은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다. 외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고유 요소를 유지하고 스스로 불러 가지 못하는 언어는 살아남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무역을 위한 공용어가 아무리 유익해도 인류의 다양한 개별 언어들을 정복하고 삼켜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공용어야말로 의사소통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계모가 아무리 잘 해주어도 생모를 대신할 수 없듯이 공용어가 개별 언어의 오묘한 구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인류가 과연 영특하다면 미약한 생물들의 멸종 위기를 알아보고 보호 운동을 벌이기 전에 경제력이 없어서 소멸해 가는 언어들의 위기를 알아차리고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지구촌이니 세계화니 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약육강식을 물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네 한국말은 오래도록 그런 위기 속에서 겨우 겨우 연명해 왔다.

중국말과 중국 문화에 놀리기를 수 천 년 하는 동안 고유한 어휘가 얼마나 죽어 갔는지 모른다. 훈민정음을 만든 직후에 지은 <용비어천가>에는 “梨浦 비애 ... 大灘 한여흘”과 같이 우리 나라의 많은 땅이름들이 한자와 함께 한글로 적혀 있다. 당시에는 이들을 “이포, 대탄”으로 읽고 부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언제부터인지 한자에 대해서 새김으로도 읽는 관습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한자를 한자음 곧 중국식으로만 읽도록 획일화하면서 “한밭[大田], 삼개[麻浦], 숯고개[炭峴]” 같은 땅 이름들을 무수히 잃어 버렸다.

우리 책상에 놓인 큼직한 국어사전 편찬자들은 이 흐름을 잘도 이어받았다. 한자말에 대해서는 표준말 여부, 옛말 여부, 품위 들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모조리 실었으나, 고유한 어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방언의 차이, 사회 계층의 차이, 품위의 차이 등을 가려내어 쓸 말 못 쓸 말을 구별하고 못 쓸 말에는 손

톱표를 찍어 표시하며 가뜩이나 궁핍한 고유 어휘의 체계를 더욱 빈약하게 해 왔다. 한자를 버릴 수 없다는 주장의 빌미가 된 이른바 ‘7할 이상의 한자말’은 이처럼 부당한 편애를 받고 사전에 오른 것이다. 유력한 국어학자였던 이들은 같은 의미에 대해서 단 두 개의 표준말도 인정할 줄 몰랐고, 이것이 또한 모국어를 스스로 깎아 버리는 일인 줄도 몰랐다. 복수 표준어란 관념은 최근에 와서야 생긴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500 년 전만 해도 훨씬 다채롭고 자유로웠던 낱말 만들기가 거의 다 죽어 버린 것은 어휘 얼마를 잃은 것보다 더 큰 피해였다. “죽.살.이”가 “생사”에 삼켜진 것보다 “늪.푸르-다, 검.푸르-다, 짙.푸르-다”처럼 “깊.푸르-다, 넓.푸르-다, 맑.푸르-다; 희.푸르-다, 붉.푸르-다, 옅.푸르-다...”라고 말할 자유까지 함께 잃은 것이 더 해로웠다. “오.가-고, 오.르.내리-고, 넘.나.들-고” 하는 우리들이 왜 “의

식주”를 “옷.밥.집”으로 바꾸지 못하고 “입.살.이, 먹.살.이, 집.살.이”로 갈라 부르지 못하는가? 우리 조상들은 “찍.먹-고”(〈덕먹고〉)라고 한 것을 우리는 “찍어 먹고”로 밖에 말하지 못한다.

이처럼 낱말의 뿌리나 줄거리 토막만 가지고도 새 말을 잘 만들었던 옛말의 법을 찾아내고 되살리지 못하는 한 한국말 속에 있는 새로운 말 생산성을 소생시킬 수 없고 그래서 해일 같은 외국말의 위협을 견뎌 낼 수 없다. 이미 있는 낱말만 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하자니까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등과 같이 책의 제목이며 단체의 이름들이 자꾸 길어지기만 하는데, 이런 것은 간결성을 추구하는 언어 변화의 노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현상인 만큼 오래 가거나 두루 적용할 것이 못 된다. 요새 영화의 제목들은 아예 번역할 생각도 없이 발음만 한글로 옮겨 적는 것이 예사인데, 이것은 우리들

이 외국 멋에 빠져서 함께 앓고 있는 유행성 언어 장애다.

대학 강단에서 영어로 강의하면 수당을 더 준다. 어느 기업체 사무실에서는 사원들이 앞으로 영어만 쓰게 할 것이라 한다. 영어를 배우는 것까지 도구와 비법에 대한 상업 광고가 각종 대중 매체마다 넘치고 있다. 영어의 공용화 운동이 집안에서 자생하는 일은 전에 없던 일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 하거나, 젓먹이를 겨우 면한 아이들에게까지 상업용 언어를 가르치자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받은 중국말의 해독과는 비길 수도 없이 더 깊고 큰 침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익히며 정신세계의 틀을 짜지 못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단 몇 세대 안에 한국말에 받아들이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 또한 바로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집단 자해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말의 이런 엄청난 위기에 묻지기, 청지기, 산지기처럼 “말지기”가 되어야 할 국어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을 가다듬고 지키고 하는 일 같은 것은 애당초 학자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은 등급 낮은 응용과 실용에 또는 심지어 외도에 속하는 것이다. 오로지 끊임없는 이론의 추구만이 순수한 학문의 임무이다. 국내에는 아직 번듯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 이론이 만발한 서양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올 새 없이 들여다가 실은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말에 적용하고 실험하기가 바쁘다.

한국말의 실체를 파악할 겨를이 어디 있는가? 미국 언어학의 대가와 그 아류들의 이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신속하게 변신하는지 그 뒤만 뚫아 해도 착실한 학자의 일생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적당한 지점에서 추종을 멈추고 마무리하는 것이 슬기로운 선택이다. 무슨 언어학, 무슨 이론들이 쏟아져 들어와도 한국말

자체에 대한 지식은 더불어 깊어지고 세밀해 지지 않는 것이 문제고, 이것을 문제로 알지 못하는 것이 더 깊은 병이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해 보고 저렇게 해석해 보고, 선배들이 세운 체계를 조금 바꿔 보거나 크게 비틀어 볼 뿐이고, 사실의 발견이 별로 없다. 누구나 아는 정도를 족하게 여기고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아보려 하지를 않는다. 그 원인은 서양 언어학이 치밀한 기술 언어학의 노고를 치른 위에 이론의 꽃을 피우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런 필수 과목을 고생으로만 여기고 피한 채 남이 공들인 꽃과 열매만 탐하는 데 있다. 씨를 만들 줄 몰라서 해마다 페추니아 모종을 수입해 와야 한다는 우리나라 원예 계와 다름이 없다.

< 이 글을 좀 더 긴 글인데 우리 말을 걱정하는 분들과 같이 생각할 내용만 뽑아 줄여서 소개합니다. 중

은 글을 쓰신 김정수 교수님께 머리 숙여 고마운 절을 합니다. 옮긴이 이대로 >

## 중국에서 지내면서

조언년 우리모임 간사

제가 중국으로 가서 지내기 시작한지 이제야 한 달이 됩니다.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힘을 잔뜩 입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언어학과로 유명해서 한국 유학생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필리핀, 네팔, 라오스, 아프리카 가지각색 유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남달리 많은 이유는 조선족자치주에 학교가 있고 한국에서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온통 우리 글자가 쓰여 있어서 중국말을 할 줄 알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늙은 이들은 거의 다 우리말을 할 줄 알아서 쉽게 도움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젊은이들이 우

리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리말이 쓰여 있고 어른들 이야기도 들을 텐데 어째서 우리말을 할 줄 모르는가? 참 이상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공공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남학생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서 우리말로 “학교생활은 재미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대답을 중국말로 “모두들 다 손전화로 노느라 재밌게 놀지 못해요.”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질문은 우리말인데, 남학생의 대답은 중국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뜻은 알아듣는데 우



리말로 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조선족 아이들이 우리말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자치주 안에도 조선족이 얼마 남지 않고 중국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조선족 아이들이 조선학교에 다니도록 규정을 만들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다. 돈을 더 주고라도 중국 한족학교에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다. 그래야 중국 어디든지 말과 뜻이 통해 살아가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고 아는 조선족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삽니다. 주말이 되면 그 집의 외손녀가 놀러옵니다. 그 아이는 조선학교 초등 졸업반이라서 조선말을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중국말로 하고 친구들과도 중국말로 수다를 떨다보니, 중국 말로는 할 줄 알아도 우리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다. 이래나 저

래나 이제 여기서도 우리말은 쫓겨나고 있는 처지입니다.

저는 가끔 한족 친구들이 듣는 한국어 배우는 수업에 들어갑다. 그 수업에 한족 친구들보다 조선족 친구들이 많습다. 우리말을 배운다고 앉아있는 조선족 친구들은 한족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다. 우리말 발음과 문장 배우기를 어려워하는 것도 똑같습다. 생각하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한족 친구들과 똑같습다.

아버지, 어머니, 친척, 이웃들은 우리말을 할 줄 알아도 자신은 배우지 않아서 못 한다는 조선족 아이의 이야기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다. 한국에서도 우리말이 외국말에 먹혀 사라져가고 죽어 가는데, 마지막 남은 담마저도 허물어지는 느낌입니다. 한국 건너편에 가깝지만 먼 나라에서는 깨끗한 우리말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알차고 넉넉히 자라야 할 한국말 살림

숲노래 최종규 한국말사전 편집자, 우리모임 운영위원

[국어사전 돌림풀이 벗기기]

성장 · 자라다 · 크다, 우화 · 날개돋이, 능하다 · 뛰어나다 · 훌륭하다 · 대단하다

누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길을 못 찾습니다. 남이 나한테 알려주기에 내가 길을 찾지는 않습니다. 남이 나한테 안 알려주어도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마음을 기울일 적에 비로소 길을 찾아요.

말뜻 하나를 놓고도 이와 같아요. 사전을 아무리 뒤적여 본들 말뜻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사전은 여러 가지 말뜻을 학자 나름대로 갈무리해서 적은 책이에요. 사전마다 ‘여

러 학자가 그 낱말을 바라보는 생각’을 읽을 수는 있되, 정작 그 낱말을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새기거나 살피서 알 만한가’는 배우지 못할 수 있어요.

예쁜 낱말을 많이 외우기에 글을 잘 쓰지 않습니다. 낱말 하나를 스스로 혀에 얹고 생각하면서 이 낱말대로 살아내 볼 적에 비로소 ‘낱말 지식’을 넘어서면서 삶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짓는 숨결로 거듭나서 글을 풀어낼 만합니다. 스스로 자라려고 스스로 말을 생각하지요. 스스로 크려고 스스로 말을 살핍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이 자랍니다. 나이를 먹으면 더 안 자란다고 여기기 일쑤이지만, 우리는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늘 새롭게 자라는 삶이라고

느낍니다. 한국말사전에서 ‘자라다’  
하고 얹힌 낱말을 살펴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성장(成長) : 1.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2.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3.  
[생물] 생물체의 크기·무게·부피가  
증가하는 일. 발육(發育)과는 구별  
되며, 형태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증  
량(增量)을 이른다

생장(生長) : 나서 자람

자라다 : 1. 생물체가 세포의 증  
식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  
로 점점 커지다 2. 생물이 생장하거  
나 성숙하여지다

크다 : [움직씨] 1. 동식물이 몸  
의 길이가 자라다 2.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성장(成長) : 1. 사람이나 동식물  
이 자라서 몸무게가 늘거나 키가 점  
점 커짐 2. 사물의 규모가 커지거나  
그 세력이 이전보다 늘어남 3. [생

물] 개체, 기관(器官), 세포가 형태  
적 또는 양적(量的)으로 증대가 되  
는 변화

생장(生長) : 생물이 나서 자람

자라다 : 1. (생물체가) 부분적으  
로 또는 전체적으로 점점 커지다 2.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다 3.  
(수준이나 역량이) 점점 높아지거나  
나아지다

크다 : 1. (동식물이) 생장(生長)  
하거나 성숙(成熟)하다 2. (동식물  
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3. (사람이)  
수준이나 지위 따위가 더 높아지다  
4. (회사나 단체 따위가) 발전하거나  
성장하다

(복讖 조선말대사전)

성장(成長) : 자라나는 것 또는 자  
라서 점점 커지는 것

생장(生長) : 나서 자라거나 크는  
것

자라다 : 1. (사람이나 생물이) 점  
점 크다 2. (정치사상적으로나 자질,  
능력적으로) 커지고 발전하다 3. 대  
오나 역량이 커지다 4. 욕망, 욕구

같은것이 점점 강해지다

크다 : (동사로 쓰이야) 자라다

남녘 한국말사전은 ‘자라다’를 ‘크다’로 풀이하거나 ‘성장·생장’이라는 한자말을 씁니다. ‘크다’를 놓고는 남북녘 한국말사전 모두 ‘자라다’로 풀이합니다. 한자말 ‘성장·생장’을 살피면 남북녘 한국말사전은 ‘크다’나 ‘자라다’로 풀이하지요.

‘자라다·크다’를 이렇게 풀이해도 될까요? 남북녘에서 사전을 엮는 분들은 ‘자라다’하고 ‘크다’를 돌림 풀이로 다룬 줄 알는지요, 모를는지요? 아무래도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다루었지 싶습니다. 아주 혼한 낱말이지만 아주 영성하게 다룹니다.

더 살피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크다’라는 낱말을 놓고 새롭게 가지를 뺀 쓰임새를 찬찬히 다루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조선말대사전은 ‘크다’를 놓고서 새로운 쓰임새를 거의 못 다룹니다. 사회 흐름에 맞추어 새로 나타나는 낱말을 사전에 더 많이 실는 일도 해야겠으나, 우리가

늘 쓰거나 흔히 쓰는 낱말도 함께 차근차근 짚으면서 더욱 제대로 살뜩히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쓴이가 손질한 새 말풀이)

성장(成長) : → 자라다. 크다

생장(生長) : 나서 자람 → 자라다. 크다

자라다 : 1. 세포가 차츰 불어나거나 부풀거나 길어지다 2. 어리거나 젊은 나날을 보내면서 어른이 되다 3. 풀과 나무가 어느 곳에서 나서 살다 4. 솟거나 재주가 무척 늘거나 높아지거나 나아지다 5. 짜임새·기운·힘이 높아지거나 나아지다

크다 : 1. 해가 갈수록 몸이 길어지거나 부풀면서 단단해지다 2.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이 되다 3. 사람이 어느 곳에서 나서 살다 4. 짜임새·기운·힘이 늘거나 높아지거나 나아지다

곰곰이 본다면 ‘성장·생장’ 같은 한자말에는 따로 뜻풀이를 안 붙여

도 될 만합니다. 먼저 ‘자라다 · 크다’를 제대로 풀이해 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를 넣어서 ‘자라다 · 크다’를 살피도록 이끌 노릇이라고 생각해요. 생물학에서도 한국말 ‘자라다 · 크다(자람 · 큼)’을 넉넉히 즐겁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우화(羽化) : 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 ≡ 날개돋이

날개돋이 : = 우화(羽化)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화(羽化) : 1. 번데기가 날개 있는 엄지벌레로 변함 2. 사람이 몸에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 《진서(晉書)》의 <허매전(許邁傳)>에 나오는 말이다

날개돋이 : 번데기가 날개 있는 엄지벌레로 변함

(북녘 조선말대사전)

우화(羽化) : 1. → 엄지벌레되기  
2. = 우화등선

날개돋이 : x

엄지벌레되기 : 번데기가 날개 있는 엄지벌레로 되는 것

번데기가 깊이 잠을 자고 난 뒤에 날개가 있는 어른벌레(엄지벌레)로 되는 일을 가리켜 한자말로 ‘우화’라고 한대요. 한국말로는 ‘날개돋이’라고 하고요.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날개돋이 = 우화’로 풀이하는데, 이는 옳바르지 않아요. ‘우화 → 날개돋이’로 적고, ‘날개돋이’를 제대로 쉽게 풀이해야 한국말사전다운 올바른 열거리라고 봅니다. 북녘 사전은 이를 제대로 짚는데, 북녘에서는 ‘날개돋이’라는 낱말은 안 쓰고 ‘엄지벌레되기’라는 낱말을 씁니다.

뜻을 더 헤아린다면, 꼬물꼬물 기기만 하던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날개 돋은 새로운 벌레’가 되는 일을 사람한테 빗대기도 합니다. 이른바 ‘거듭나기’를 ‘날개돋이’로 빗대어서 쓰지요. 이러한 빗대말 쓰임새도 사전에 담을 수 있어요.

(글쓴이가 손질한 새 말풀이)

우화(羽化) : → 날개돋이

날개돋이 : 1. 날개가 돋는 일. 날개가 없던 애벌레가 번데기로 잠들다가 깨어날 적에 날개가 돋는 일 2. 예전 모습을 내려놓거나 버리면서 아주 달라지거나 새로워지는 모습. 거듭나는 모습 ≍ 엄지벌레되기

표준국어대사전은 ‘엄지벌레’라는 한국말을 안 쓰고 ‘성충’이라는 한자말을 쓰는데, 이 대목도 바로잡아야지 싶어요. 한국말이 버젓이 있는데 이를 안 쓰는 일은 한국말사전 답지 않습니다. 학자도 여느 사람도 한국말을 즐겁고 슬기롭게 쓸 일인데, 이와 함께 사전도 사전답게 한국말을 한결 살찌우고 북돋는 구실을 할 수 있어야지 싶어요.

(표준국어대사전)

능하다(能-) : 어떤 일 따위에 뛰어나다

뛰어나다 : 남보다 월등히 훌륭하거나 앞서 있다

훌륭하다 :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대단하다 : 1 매우 심하다 2. 몹시 크거나 많다 3. 출중하게 뛰어나다 4. 아주 중요하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능하다(能-) : 막히거나 서투른 데가 없다

뛰어나다 : 남보다 두드러지게 높거나 낫다

훌륭하다 : 1.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2. 칭찬할 만큼 대단하거나 뛰어나다

대단하다 : 1. 보통보다 비길 수 없이 더하거나 심하다 2. 몹시 크거나 많다 3.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특별하고 뛰어나다

(복녜 조선말대사전)

능하다(能-) : 1. 서툴지 않고 솜씨있고 익숙하다 2. 능력이 있다

뛰어나다 : 수준이 두드러지게 아주 높다

훌륭하다 : 매우 좋게 평가할 만

하게 잘 되어 가거나 대단하다

대단하다 : 1. 보통정도보다 비길  
바 없이 더하거나 심하다 2. 아주 중  
요하다 3. 평판이나 소문 같은 것이  
자자하고 굉장하다 4. 몹시 뛰어나  
거나 특별하다

‘뛰어난’ 모습하고 ‘훌륭한’ 모습  
은 어떻게 다를까요? 누구를 보면서  
‘대단하다’ 하고 말할 적에는 어떤  
느낌일까요. ‘능하다’라는 외마디 한  
자말을 쓰는 분이 제법 있는데, 이  
낱말은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남북녘 한국말사전은 ‘뛰어나다 ·  
훌륭하다 · 대단하다’를 돌림풀이에  
같은 열거리로 다룹니다. 무척 좋거  
나 낫거나 앞선다고 할 적에 쓰는  
이 세 낱말이 저마다 어떠한 결인가  
를 슬기롭게 살피서 보여주지 못합  
니다.

한글이 훌륭하다면 이 훌륭함이  
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쓰는 말이  
대단하다면 이 대단함이란 무엇일  
까요? 우리한테 뛰어난 글씨가 있다  
면 이 글씨에 깃든 뛰어난 결을 어

떻게 살리면 아름답고 즐거울까요?

(글쓴이가 손질한 새 말풀이)

능하다(能-) : → 잘하다. 뛰어나  
다

뛰어나다 : 남보다 눈에 띄이도록  
훨씬 낫거나 좋거나 앞서다

훌륭하다 : 1. 됴됨이나 몸짓이  
무척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2. 한  
일이나 지은 작품이 아주 잘되다 3.  
마음에 들 만큼 매우 아름답다 4. 씬  
씀이나 쓰임새가 아주 좋다

대단하다 : 1. 매우 세거나 깊다  
2. 아주 크거나 많다 3. 누구보다 훨  
씬 낫거나 좋거나 앞서다 4. 크게 여  
길 만하다

외마디 한자말 ‘능하다’는 ‘→’를  
넣어서 한국말을 살피보도록 이끌  
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뛰어나다 ·  
훌륭하다 · 대단하다’는 나란히 맞대  
면서 뜻이 안 겹치도록 차근차근 가  
다듬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낱말은 사회가 달라지면서  
쓰임새도 차츰 깊어지거나 넓어집

니다. 한국말사전은 세 낱말에 차츰  
 깃드는 새로운 결을 살피서 뜻풀이  
 를 더 붙여 주어야지 싶어요. 어찌면  
 앞으로 이 세 낱말은 쓰임새가 더  
 늘면서 뜻풀이를 더 붙여야 할 수  
 있어요.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이 무럭  
 무럭 자라는 한국말을 배우도록 우  
 리 어른들이 더 마음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씩씩하게 크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 모두 한국말  
 을 새롭게 바라보고 넉넉히 살찌워  
 서 알차게 배울 수 있기를 빕니다.



## 농사말 바로 쓰기

이오덕 우리모임 창립위원

‘작목, 작부, 작황...’ 농민이 쓰는 말이 아니다.

농사꾼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알려면 실지로 농촌에 가서 들어보면 되겠지만, 농사일과 농사꾼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글을 보면 신문이든지 잡지든지 교과서든지 (날권책은 없다. 책방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쌓여 있어도 농사짓는 이야기를 써놓은 책은 찾아볼 수 없다.) 모두 농사꾼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유식한’ 사람들이 글에서나 쓰는 말로 되어 있다. 농사일과 농사꾼 이야기를 쓴 글에서 정작 농사꾼의 말은 없는 것이다.

농사꾼들의 말은 자꾸 산골로 쫓겨 들어가 숨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어설픈 글말, 남의 나라에서 온 글자말이 가는 곳 마다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지난번에는 ‘작물’이란 말을 두고 따져 보았지만, ‘작목’이란 말이 신문에 나오고, ‘작부’ ‘식부’ ‘작황’ 따위 말도 쓰이고 있다.

### ◆ 발작물 栽培 집단화 활발

忠南 “경쟁력 제고”...작목 전환  
도 (한국일보, 92.8.11 제목)

여기 찍어 있는 ‘작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사전에도 없다. 우리 말은 있어도 안 쓰지만, 남의 나라 글자말은 사전에도 없는 것을 잘도 만들어서 쓰고, 그렇게 만들어 쓰는

것을 또 받아들이니 이것이 학교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걸려 있는 고질병이다. 아마도 이 ‘작목(作物)’은 ‘작물의 품목’쯤 되는 말이라 짐작한다. 그렇다면 ‘작물’과 마찬가지로 ‘곡식’, ‘심을 곡식’이라든지 ‘농사거리’라면 될 것 아닌가.

온통 중국글자말로만 되어 있는 위의 신문제목을 내가 쓴다면 다음과 같이 쓸 것이다.

◆ 밭곡식 어울러 가꾸기 활발  
충남 “경쟁력 높인다.”…심을 곡식 바꾸기도.

‘작목’이란 말이 들어 있는 신문 제목이나 기사를 몇 가지 더 들어본다.

◆ 農家 작목전환 “2중고” (제민일보, 92.6.25 제목)

◆ 위탁판매 수수료·운송료·종자 구입 등.

화훼재배 걸림돌

거의 임차농 생산기반 취약

대체작목 부상 시들 (제민일보,

92.6.25 제목)

◆ 농산물 수입개방 여파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도내 파인애플·바나나 농가들이 작목전환을 원하고는 있으나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데다 작목전환자금 한도액 역시 빈약, 二重苦를 치르고 있다. (앞의 제목으로 쓴 기사 첫머리)

내가 알기로는 제민일보는 우리나라 일간신문 가운데서 농사에 관한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루는 신문이다. 그런데 기사에서 쓰는 말은 다른 신문들과 다름이 없어, 농민들의 말과 거리가 너무 멀다. 위에서 든 세 가지 글을 농사꾼들이 잘 알 수 있는 말로 고쳐본다.

◆ 농가, 심을 곡식 바꾸기 겹고생

◆ 맡겨 팔기 수고값·운송료·씨앗 사기 따위

꽃 가꾸기 걸림돌

거의 빌어짓는 농사, 생산터전 연약

바뀌 심을 곡식 안 떠올라.

◆ 농산물 수입개방 뒷영향으로  
값이 뚝 떨어지면서 파인애플·바나  
나 농가들이 농사 거리를 바꾸고 싶  
어 하지만 마땅한 곡식이 없는데다  
농사 거리 바꾸기 자금 한도액 또한  
빈약해 어려움이 겹치고 있다.

다음은 ‘식부’니 ‘작부’니 하는 따  
위 말이다.

◆ 道당국, 고구마 심기 독려기간  
설정 식부 독려 (제민일보, 91.6.13  
제목)

여기 나오는 ‘식부’는 ‘植付’(우에  
쓰케)란 일본말을 따라서 쓴 괴상한  
말이다. 보기글은 안 들었지만 ‘작  
부’도 ‘作付’(사쿠쓰케)란 일본말이  
다. 이런 말을 아직도 농촌에 가면  
면서기들이 공문서에 흔히 쓰고 있  
는 줄 안다. 놀랄 일은 이런 ‘식부’니  
‘작부’ 따위를 우리말 사전에다 버젓  
하게 올려놓고 있는 일이다.

위에서 들어 놓은 제목에 나오는  
‘식부’는 ‘심기’나 ‘심도록’하면 된다.

그런데, 농사꾼들이 고구마를 심  
는 것까지 행정하는 이들이 무슨 기

간을 정해서 심어라 심어라고 독려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이 행정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곡식 심고 거두는 일이야 누구보  
다도 그걸 가꾸는 농민들이 그 때를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때가 되면 고  
구마고 감자고 벼고 심지 말라고 해  
도 심고, 거두지 말라고 해도 거둔  
다. 사람이 없어 못 심고 못 가꾸고  
못 거두 뿐이지.

행정관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필요도 없는 일이 아니고 아주 달리  
농사꾼들을 도와줄 일들이 따로 많  
이 있을 것이다. 나는 행정이라는 것  
을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든  
다.

관리들이 농민들 앞에 나서서 이  
번에는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할 차  
레다. 이쪽으로 오너라 하고 농민들  
을 끌고 가려는 것은 백성들을 종으  
로 부려먹고 싶어하던 일제식민지  
행정형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까 관리들이 농사꾼의 말  
을 쓰지 않고 왜놈들이 쓰던 말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다. 그 다음은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어 관리들이 쓰는 말을 따라서 쓰고, 한글학자들끼리 낮이 빠져 그런 말을 우리 말 호적에다 올려 놓는다.

‘작황’이란 말이 또 있다.

◆ 수해등의 영향으로 농촌에선 중간상인들의 발떼기가 극성, 김장 채소 작황은 예년보다 좋지만 가을철 또 한차례 가격파동이 우려된다. (중앙일보. 90.10.16 사진설명)

여기 나오는 ‘작황(作況)’도 농사꾼들이 쓰지 않던 말이고, 책에서나 쓰던 말이다. 말소리도 ‘작황’이 되어 우리말답지 않으니 안 썼으면 좋겠다. ‘농사형편’이라 해도 될 것이고, ‘됨새’라면 더 좋지 않겠나 싶다.

사전에서 이 말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보자.

**작황** - 농작의 상황 (민중 국어사전)

**작황** - 농작이 잘되고 못된 상황. 됴새 (새 우리말 큰사전)

**작황** - 됴새.(우리말 큰사전 · 한글학회)

**작황** - 농사형편. 농형. 됴새 (쉬

운말 사전)

이렇게 사전마다 ‘작황’이 올려 있지만, ‘됨새’ ‘농사형편’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이다. 꼭 중국글자말을 쓰고 싶으면 ‘작황’보다는 ‘농황’이 낫다.

<쉬운 말 사전>에 ‘농형’이란 말이 있고, 사전마다 이 말이 올려 있는 하지만, 이 ‘농형’은 ‘농사 형태’로 잘못 알기 쉽다.

또 <새 우리말 사전>과 한글학회의 <우리말 사전>에는 ‘작황예보’ ‘작황지수’란 말이 나와서, 두 사전이 똑같이 이 말들을 다음과 같이 풀이해 놓았다.

작황예보 농작물의 수확고를 수확하기 이전에 추정하여 공표하는 일.

작황지수 농작물의 작황을 예상하여(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에는 ‘예상하여’를 ‘미리 짐작하여’라고 써놓았다.) 평년에 비하여 어떠한 상태에 있나를 나타낸 지수.

이런 말 ‘작황예보’나 ‘작황지수’

는 바로 수확이란 말을 써서 ‘수확예보’ ‘수확지수’라고 하면 될 것이다. ‘소출 미리 알리기’ ‘소출’이라 해도 되겠지.

(사전에는 작황예보를 풀이한 글에는 ‘농작물’ ‘수확고’ ‘추정’ ‘공표’ 따위 말을 쓰지 말고 ‘소출을 미리 짐작해서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고, 작황지수도 ‘소출을 미리 짐작하여 보통 해에 견주어 어떠한 형편에 있나를 나타낸 지수’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

앞에서 들어 놓은 중앙일보 사진 설명문을 ‘등’ ‘가격’ ‘우려’ 따위 말도 고쳐서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 수해 따위의 영향으로 농촌에서는 중간상인들의 발떼기가 극성을 부려, 김장채소 뽕새는 여느 해보다 좋지만 가을철 또 한 차례 값 소동이 날 것 같아 걱정된다.

## ‘우리말 풀이씨’의 힘

문영이 《지는 꽃도 아름답다》, 《내 똥 가득 숨탄 것들》 씀.

우리 겨레가 우리 말글의 귀중함을 모르고 지내다가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란, 1895년 민 황후 살해, 이어 일본 총감부가 들어서고, 식민정치로 넘어가는 틈바구니에서야 우리 말글이 귀중함을 깨닫고, 1896년에는 오롯한 한글로 독립신문을 냈으며, 《한글이야 말로 겨레를 깨우쳐 나라를 찾는 길이다.》는 주시경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지만, 1905년 11월 17일 한일 보호조약으로 우리 주권이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시경 선생님은 1907년부터 ‘우리 말 여름강습회’에서 강의를 듣게 하는 한편, 선생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1914년) 《배달말 말본은 배달말로써 풀이씨야 학문도 배달말로 일

굴 날이 온다. 입말이 글말이어야 한다.》 하시며 배달 말본을 과학스럽게 연구하시다가 연구 자료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니, 그 제자들도 그 얼을 본받아 일제의 강압 밑에서도 꾸준히 연구 정리하고, 보전 보급하여, 최현배님은 1934년에 배달말 풀이말로 『중등조선말본』을 지으셨고, 이어 1935년에는 『중등조선말본』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한글(언문), 이름씨(명사), 대이름씨(대명사), 매회이름씨(의존명사), 그림씨(형용사), 어찌씨(부사), 매김씨(관형사), 움직씨(동사), 하임움직씨(사동사), 도움움직씨(조동사), 제움직씨(자동사), 남움직씨(타동사), 토씨(조사), 이음씨

(연결사), 느낌씨(감탄사), 마침씨(종지사), 씨끝(어미), 임자말(주어), 풀이말(서술어), 셈본(수학/산수), 으뜸셈씨(기수사=밀바탕이 되는 수=0-9까지 정수), 차례셈씨(서수사=차례를 나타내는 수사), 덧셈(가산), 뺄셈(감산), 곱셈(승산), 나눗셈(제산), 세모꼴(삼각형), 네모꼴(사각형), 마름모꼴(등변사각형)말모이(사전, 말본(문법), 겨레(민족), 갈음(대신), 잇매는(연결하는), 올쓰기(전용), 뒤칠이(번역자), 따갈피(地區), 자랑(공지), 갈말(술어), 옹근(완전한), 소리갈(음성론), 지난갈(과거론), 씨갈(품사론), 말모이(사전, 말본(문법), 겨레(민족), 갈음(대신), 잇매는(연결하는), 올쓰기(전용), 뒤칠이(번역자), 따갈피(地區), 자랑(공지), 갈말(술어), 옹근(완전한), 소리갈(음성론), 지난갈(과거론), 씨갈(품사론)……》 이런 우리 말 풀이씨와 풀이말을 담았습니다.

해방 바로 뒤 겨레말(국어)은 말

할 것 없고, 여느 과목도 아무 탈 없이 배달말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한글 올 쓰기를 적극추진하고 실천함으로 낡은 권위의식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존과 독창정신으로 모든 삶에서 배달말을 써야 한다.”는 기운으로 겨레는 뭉쳤습니다. 이런 공덕으로 1948년에는 ‘한글전용법’이 법률로 국회에서 통과했고, 그 뒤 1957년 6월 한글학회는 총회에서 배달말로 된 말본 풀이말을 아무 거스름 없이 채택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동안 주시경 선생님과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이룩한 ‘우리 말 풀이씨’가 빛을 보게 되었지요.

어른들은 배달말 풀이씨로 공부하는 아들딸을 굽어보시며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한다더라. 이화여자대학교 이름은 ‘배꽃계집아이배움집’이라 하려나? 이렇게 온 겨레는 어린 아이 한 마음으로 배달말로 나날이 새로워갔습니다.

그러던 1962년 1월 국어국문학회에서 ‘한글을 쓰기로 풀이말을 삼을 수 없고, 한자말(중국글자말) 풀이씨를 쓰기로 다수가결로 결정했노라’는 말을 듣고, 최현배 선생님은 불편한 몸으로 문교부 장관을 찾아 “제 나라말을 제 나라말로 풀이말을 쓰는 것은 진리다.”하고 들이대자, 문교부장관의 “그 회의 인선이 극히 편파스럽게 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니, 이대로는 결정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이를 결재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최현배 선생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팔아, 소위 ‘학교말본 통일안’이란 것은, 그 중간자인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 성격이 부당했음으로 보나, 그 구성 인원의 5분지 4가 말본과 관계가 없는 점으로 보나, 그 이론이 틀린 점으로 보나, 또 배달말 풀이말의 보급 여론의 월등한 우세함으로 보나, 한글 운동의 역사정신으로 보나, 겨레의 자주문화 창조의 기운과 방향으로 보나,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파란과 비리, 사심과 가면이 횡행하여 모든 천지에 날떨 터이니, 어찌 나라 걱정을 금할 수 있으랴?

일정 때 우리 땅 곳곳에 왜 헌병이 깔려 있고, 금테모자에 긴 칼을 찬 일본교장 교사가 망한 나라 노예된 백성에게 강제 위압으로 밀어 넣었던 중국글자말 명사, 대명사, 동사, 분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간투사, 형용사, 감탄사 들들이 ‘배달말 풀이씨’를 몰아내겠다는 말은 배달말 우듬지를 다시 자르는 일이다.” 이런 피 맺힌 반대는 아랑곳 않고,

‘중국글자말 풀이씨’를 되살리자, 해방 뒤 열여덟(18)해 동안이나 숨죽였던 중국글자말이 일본 토씨까지 달고 면죄부를 받은 듯 모두 되살아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최현배 선생님은

“말이란 단순한 의사 전달의 연모



가 아니다. 말은 얼을 나타내고, 글은 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얼과 말과 글은 셋이면서 하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토박이말을 잃으면 우리 얼이 빠집니다.

글자 없이 입말만으로 살던 고조선이 동아시아의 주인노릇 했던 것은 겨레의 얼이 담긴 토박이말이 흠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겨레의 얼이 살아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이렇게 힘 있던 우리 토박이말은 중국글자를 빌려 쓰며 생긴 중국글자말, 일본이 밀어붙인 중국글자말과 일본 토씨, 사대주의 찌든 때를 못 씻는 사람들이 불러들이는 서양말과 서양토씨에 밀리고 있습니다.

"일정 때 우리 겨레는 글과 말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지금은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일본말을 줄줄 따라 가는 한국. '독섬(독섬)'이란 제 이름조차 찾지 않고, 일본이 바뀌준 '독도'를 그대로 쓰는 한국', 이런 속 빈 구석을 보고 일본이 돌

섬이 저의 것이라 욕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식민이었던 일이 무슨 자랑이라고, 일본이 총칼로 밀어 넣은 중국글자말에 일본 토씨까지 팔려 넣은 그 글을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미국말까지 분별없이 끼면서, 줄 잡아도 우리 겨레 반 수 넘는 사람은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말 때문에 사는 것이 늘 뒤숭숭하고, 누구에게 속아 살지 않는가 하는 걱정 에 휩싸입니다. 이런 '중국글자말'을 치울 생각은 못하고, 그 말을 더 자세히 알자고 한자를 되찾아 쓰자는, 얼빠진 사람까지 설치고 있단니요? 이견 안 될 말입니다. 반 수 넘는 겨레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삶을 사는 현실을, 나라에서 모르쇠 하는 일은 크나 큰 횡포입니다.

120해 (1896해) 앞선 독립신문이 “한글로만 쓰는 것은 상하귀천이 모두 보게 하려는 것이다”고 했듯

이.

나라의 문자정책은 어떻게 하면 모든 겨레가 빠짐없이 글말살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잣대로 세워야합니다. 많이 배워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신문과 방송, 학문과 교육, 행정과 정치를 이끄는 사회 지도층 사람들은 중국글자든 로마자든, 중국글자말이든 서양말이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과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중국글자말과 서양말이 무섭고, 두려운 장벽입니다.

안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기를 꺾는 이 일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 일입니까? 잘 아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과 말하기 싫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잘 아는 사람과 말하기 싫어합니다. 아니, 하려해도 못 알아들었으니 할 수 없습니다. 남북의 장벽도 무서운데 또 다른 장벽을 만들려고요? 나라꼴이 어

떻게 되려고요?

가난해서 못 배운 사람들과 더불어 힘들이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는 쉬운 말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열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나 통일이 3년 뒤에 이뤄질 것이 20 해 뒤에 이뤄진다고 해서 그 민주나 통일의 바탕이 아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변질 되거나 같아지면 그것은 날이 갈수록 굳어져 아주 영원히 도리 킬 수 없이, 제 겨레의 명줄마저 끊고 맙니다.

이 오덕 선생님은 이렇게 된 가장 큰 까닭은 ‘남의 토씨’를 쓰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토씨는 앞 말에 붙여 써서 제 홀로는 따로 설 자리도 없지만, 앞의 말과 뒷말의 관계를 나타내고, 붙여 써놓은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여주는, 낱말에 생명을 불어넣는 노릇을 하기 때문에, 배달말

을 배달말답게 한다고 보아야 옳다. 그런데 아주 엉뚱한 일본 토씨가 그 꼴 그대로 한글 탈을 쓰고 있어, 배달말 틀이 다 일그러지고, 배달말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토씨를 제 자리에 놓지 않으면 배달말이 제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일본 토씨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뒤쳐 쓰고 있는 일은 일본 토씨 ‘の’를 우리 토씨 ‘의’로 쓰는 것입니다. 배달말에서 ‘의’는 아주 드물게 쓰이는데, 일본말에서 ‘の’는 우리나라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씁니다.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글을 읽은 사람들은 배달말을 그만 일본말 같이 ‘의’를 아무데나 마구 붙입니다. ‘의’를 쓸 필요가 없는 자리에 쓰고, 써서는 안 되는 자리에 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토에다가 군더더기로 붙여서 괴상한 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꼴로 쓰는 ‘의’로 겹치는 토씨는

①<との→와의, 과의>. ②<への→에의> ③<への→로의/의로의> ④<からの→에서의> ⑤<としての→로서의/으로서의> ⑥<からの, よりの→로부터의, 으로부터의> ⑦<への→에로의> ⑧<-에게로의> ⑨<-만으로의> ⑩<-나름대로의> ⑪<-마다의> ⑫<-때마다의> ⑬<-に於(おい)て→-에 있어서(의)>들 13가지나 있고,

그 밖에 필요 없이 겹치는 토씨로는 (ㄱK-에게서/에게서는) (ㄴK-에로까지) (ㄷK-에까지도) (ㄹK-에서부터) (ㅁK-(으)로부터) (ㅂK-마다에서) (ㅅK-에게마다) (ㅇK-까지마다) (ㅈK-마다에) (ㅊK-마다에는) (ㅋK-으로써만이) 들 11가지나 있습니다.

※ 거기에 <진다> <된다> <되어진다> <불린다. 불리운다> 같은 남음직씨끼리는 포개 쓸 수 없는데도 포개 쓰며 입음도움음직씨를 아무데나 함부로 쓰는 것도 일본 말글의 영향입니다. 방송에 나온 사람에게 "좋으십니까?" 물어보면, " 좋습니다"

고 대답 못하고 제 속을 말하면서도, 마치 남의 속을 말하듯이 "좋은 것 같습니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겨레가 남의 토씨를 쓰는 사이 제 속조차 바로 말할 수 없는 못난이가 되었습니다.

중국글자만 썼던 왕조 때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적(的)’자는 한 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일본말은 된소리와 닫힘소리가 없고 예사소리와 열린소리 뿐이어서, 고민하던 터에 영어 ‘-tik’ 소리와, 중국 토씨 ‘-的’의 일본 발음 て키(테끼)의 소리가 비슷하대서 ‘의’ 자리에 ‘-적’을 넣기도 하고, 소리를 갖추느라 쓴 것이라, 별 뜻도 없이 거저 쓰인 곳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일본이 중국글자말에 ‘-의’를 팔려 넣고, 일본가 나글로 ‘て키(테끼/테끼)’라 토 달아 우리 토씨 ‘의’ ‘가’ ‘에’ ‘스럽다/답다’를 분별없이 죽이면서, 실속 없이

겉만 부풀리는 글을 쓰고 말도 하게 하였습니다.

‘等(등)’자도 일본이 집어넣고 가나글자로 ‘など’라고 토 달아 쓰며 배달말 토씨 ‘들’ ‘따위’ ‘같이’.....’들을 죽였던 것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토씨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중국글자말의 앞이나 뒤에 중국글자 한 자씩 붙이던, -적(的)·등(等)·-화(化)·-물(物)·-당(當)·-성(性)·-하(下)·-상(上)·-감(感)·-시(視)·-리(裡)·재(再)·-제(諸)·-미(未)·-대(大)·-소(小)·-신(新)·-고(古)·-현(現)·-초(超)·-탈(脫)·-불(不)·-합(合)·-대(對)·-매(每)·-무(無)- 26자가 그대로 남아 마음대로 배달말에서 활개칩니다.

이 군더더기 글자에서 ‘-적(的)’자, ‘등(等)’자가 들어가는 말이나 글에서 ‘-적’, ‘등’, 두 자만 빼버려도, 지금까지 저를 덮치고 있던 ‘중국말 틀, 서양말 틀로 짜놓은 그물’에서

시원스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배달말이 보여서, 다른 나머지 잘못된 모든 말들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 ‘등’을 많이 썼던 사람도 마음을 단단히 맘먹고, 이 두 글자를 빼내는 싸움을 제게 걸어보세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 윗대 어른들은 스스로 하늘이 주신 백성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 온갖 것을 끔찍이 여겨 제게 따를 것조차 '가졌다'고 하지 않고, 나는 아들 하나를 두었다.' 내게 땡마지거나 '있다.'고 말하며 살았는데, 서양말이 들어오고,

'자유가 있다.'→'자유를 가진다.'

'공연을 한다.'→'공연을 갖는다.'

'저마다 타고난 재능'→'타고난 저마다의 재능'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았습니다.'→'잘 살았었습니다'로 씁니다.

서양 말본을 따라 '두었다' '있다'는 '갓다'로 쓰고, 낱말 차례도 바뀌고, 때 맥임도 바뀌었습니다.

이 많은 일본토씨 서양토씨가 끼었으니, 배달말 틀이 다 일그러지고, 배달말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토씨는 제 나라말을 부르는 법이라, '일본말 서양말이 살기 좋다'고 자꾸 몰려와서, 우리 말이 헛갈려 가리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글은 세종 임금님이 만드셨지만, 하늘이 컴퓨터에 맞추어 내려주신 듯합니다. 중국글자나 일본글을 기계로 쓰려면 한글로 쓰는 일곱(7)배 이상의 경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손말틀의 문자 입력 방식은, 홀소리와 닿소리를 나누는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를 살려서, 닿소리 열넷에다 홀소리 셋으로 만드니 단추 하나에 로마자는 셋씩 맡았으나, 한글은 둘씩 맡고도 단추가 남았습니다.

철자 하나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손놀림은 영어보다 35할 정도 적게 놀리면서 빠르답니다. 한글보다 먼저 나온 로마자가 온 누리에서 으뜸 글인줄 알았던 ABC가 쪽도 못 쓰게 뛰어난 한글이 제 기량을 펴려면, 한글 말고 서양글자가 섞여서도 안 되고, 중국글자가 섞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글자가 없을 때 입으로는 우리 토박이말을 하면서 중국글자공부를 하려니, 입말과 글말이 같은 중국 사람을 아무리해도 따라갈 수 없어, 중국 사람을 부러워하고, 턱없이 높여 보게 되었던 열등의식, 그 열등의식은 사대주의 사상을 낳았습니다. 이 사대주의사상은 우리 겨레에게서 자주정신을 빼앗아 일본의 침략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토박이말로 하면 똑 부러질 말도 중국글자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이라 바른 말살이를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중국글자말. 어쩔 수 없이

받은 어른들이 내가 아는 말이니 너희도 받으라고 끝까지 버티는 못한 어른이 되지 맙시다.

⊗ 중국글자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다만 중국글자만 안 써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중국글자에서 생겨난 어설픈 말을 안 써야 한다는 말이고, 토박이말을 찾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글자말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우리 얼이 빠진 말입니다. 온 누리에서 으뜸 글자가 있는 겨레답게 열등의식은 훌훌 털어버리고, 제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 뒷늬들이 쉬운 말글(연모)로 훨훨 나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해방 뒤 ‘우리 말 풀이씨’로 쓰게 했을 때와, 1962년부터 중국글자말 풀이씨가 되살아난 뒤의 생생한 차이는, 배달말 풀이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가를 똑똑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말로 된 말본 풀이 말과, 풀이씨를 쓴다면, 전자말 누리에서 한글은 시간이 갈수록 듣는 헛살 같이 빛날 겁니다. 이제 일본 토씨, 서양 토씨를 몰아내지 않고는 중국글자말, 서양말을 몰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 모두가 함께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호에 실습니다. >

은 겨레가 슬기로운 토박이말로 생각과 느낌을 더 잘 주고받아서, 서로 말을 환히 알아듣고, 서로 마음을 환히 알 수 있게 되면, 겨레 화합은 절로 이루어라 믿습니다.

광복 70해. 이 말은 토박이말을 아는 마지막 세대가 80고개를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더 꾸물댈 틈이 없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뜻을 올해는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 2015년 뜻 깊은 한글날이 며칠 남은 10월 6일에 문영이 선생님이 청원한 글입니다. 뒤늦었지만 그래

## 아흔세 가지로 틀리게 쓰이는 낱말 ‘모습’

미승우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란 책을 옮김.  
국문학자이시며 학술 연구위원으로 교과서 연구를 하셨다.

나는 1982년 16호 《말과 글》에 ‘모습’이라는 말이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예순 한 가지로 틀리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 뒤로도 틀리게 쓰이는 경우의 사례를 들어 일흔아홉 가지로 남용되는 사례들을 소개한 일이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아흔세 가지로 틀리게 쓰이고 있는 사례들을 발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한 낱말이 잘못 쓰이는 사례들을 줄곧 집계하는 성격의 것이니 만큼 전에 발표했던 글에 덧붙여서 써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보기 싫은 글이나 졸렬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뜻을 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독자에게 주는 부담이 크면 클수록 그 문장은 외면당

하고 만다. 문장이 외면당한다는 것은 문장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생활에 나쁜 신호가 될 수 있고 지식인으로서도 제 대접을 못 받게 된다.

문장에서 뜻이 이도 저도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알맞지 못한 낱말을 쓴다거나 조사(助詞)를 마구 줄이거나 반대로 조사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 그리고 ‘섬표’의 기능을 무시하는 경우가 가장 큰 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알맞지 못한 낱말의 사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습’이다. 이 말이 언제부터 이토록 심하게 오용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지금은 소위 ‘국어학자’나 ‘문인’이니 ‘지식



인'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국민 학교의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마구 쓰고 있는 실정이다.

총계 말하면, 모습은 말의 쓰임이 다양해서 꼭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낱말 중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 말의 뜻이 아무렇게나 해석되고 무턱대고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뜻이 지나치게 다양해지면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은 벌써 '은어'와 다를 바 없다.

'모습'의 뜻은 '자태(姿態)'와 같으므로 어디까지나 우리의 눈에 비친 형태에 관련된 것에 써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없는 것까지 쓰고 있으며 적당히 삽입하는 경우도 많고, 쓰지 않아도 될 문장까지 마구 쓰고 있는 실정이다.

자그마치 아흔세 가지 말 대신으로 쓰이고 있다면 다른 낱말에서는 그 보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예문을 들기에 앞서 '모습'의 본 뜻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자.

'모습'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의 '貌襲(모습)'에서 온 말이다. 그 뜻은 '사람의 생긴 모양'이다. '어머니의 모습'이 그 보기라고 하겠다. 貌는 '모양 모'이고襲은 '옷 덧입을 습'이다. 그리고 이 두 자를 합쳐서 모습·모양·뒹뒹이·형용·꼴·형상의 뜻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모양(貌樣)은 사물의 형편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므로, 이렇게 갈라진 뜻까지 계산하더라도 '모습'의 뜻은 여섯 가지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예문에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지침서의 3교지에서 뽑아온 것이다. 문예지의 소설이나 신문에서 뽑은 것도 있고 방송을 듣고 뽑은 것도 더러 있다.

건축미	구실(口實)	궁도(宮圖)
걸	구조(構造)	기교(技巧)
•경관(景觀)	국면(局面)	기능(機能)
기미(氣味)	성능	추세
기상(氣象)	성장	태도
기질(氣質)	소임(所任)	틀
까닭	속성(屬性)	풍습
내력	슬기	발전(發展)
내막	습관	방법
내용	신비	방식

노력	실패	버릇
느낌	쓰임(쓰임새)	변천
단계	과정(過程)	변화
동기(動機)	관리 실패	보관 상태
• 모양	광경	형편
변화	응어리	양상(樣狀)
문제	의지(意志)	양식(樣式)
경로(經路)	이유	-에 대해
경우	• 자세	역할
경지	자취	움직임
본질	• 자태	원리(原理)
분위기	작용	윤곽
비밀	장면	활동
사정(事情)	점(點)	풍치
삶	정상(情狀)	현황
• 상(相)	정정(政情)	혈통
상태	지혜	형상(形象)
상황	짜임(짜임새)	형세
생김새	처절함	형식
생활	철학	형태
성격	체재(體裁)	흐름

각 예문에 ‘모습’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다면 그 예문의 ‘모습’은 잘못 쓰인 낱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발해의 문화에는 고구려의 영향이 많아 불상이나 와당에는 매우 강건하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진취적인 **기상**’이다. 기절이라는 말을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회복되는 **기미**’ 또는 **추세**나 **흐름**을 써야 한다.

[3] 서양 문물이 도입된 후 달라진 생활 **모습**의 변화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모습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 그대로 ‘생활의 **변화**’라고 해도 된다. 굳이 넣기를 고집한다면 ‘생활 **양식**’ 또는 ‘생활 **방식**’을 쓰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넣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

[4]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 **모습**을 소개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생활상’이다. 생활 모습이면 생활 광경을 뜻하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가운데에는 시각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생활 광경’은 적절하지 못하다.

[5] 신라 때의 청해진 설치의 **모습**과 그 의의를 발표한다.

여기서는 청해진 설치의 **목적**이나 **이유**이다. 이유의 동의어 **까닭**도

쓰일 수 있다. 동기일 수도 있다.

[6] 만민 공동회란 무엇이며,  
그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성격이다.

[7] 열강의 이권 개입과 그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내막이다. 앞뒤의 문장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양상이 될 수도 있다.

[8] 을사 보호 조약은 언제 맺었으며, 당시의 나라 안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기서는 ‘나라 안 사정’이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말을 쓴다면 정정(政情)을 써도 된다.

[9]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자극시키니 여러 모습의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여러 형식이나 형태이다.

[10] 일본에 대한 빛 갇기 운동이 일어난 까닭과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기서는 운동의 양상이다.

[11] 조상의 유물을 통해 우리

의 생활에서 옛날과 다른 모습을 찾아보자.

여기서는 풍습이다. 유물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생활 ‘양식’이 될 수도 있다.

[12] 수차(水車)의 발명과 이용 모습을 알아본다.

여기서는 이용 상황이다.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13] 우리 생활의 변화 모습을 안다.

여기서는 변화 상태이다.

[14] 수상 교통을 위한 조직과 이용 모습 알아보기

여기서는 이용 실태이다.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5] 옛날의 육상 교통의 이용 모습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육상 교통의 ‘이용에 대해’가 더 적절하다.

[16] 해상 교통의 변화 모습 조사하기

여기서는 변화 과정이다. 변화보다 변천이 더 적절하고 ‘과정’이 모습보다 더 좋다. ‘모습 조사하기’는

시각적 관찰과 통하는 말이고, ‘과정 조사하기’는 관찰이 아닌, 문헌이나 표본을 통한 자료 정리와 통하므로 이 두 낱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17] 우리의 식생활 관습이 이루어진 모습을 돌아보았다.

여기서는 **자취**이다.

[18] 불이 생활에 쓰이는 여러 **모습**을 말한다.

여기서는 여러 **경우**이다.

[19] 파발의 종류와 이용 **모습**은?

여기서는 이용 **목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 **방법**도 될 것이다.

[20]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칭과 그 후의 **모습**을 알아보자.

여기서는 **성장**이나 **발전**이다. 변천도 좋다.

[21] 옛날과 오늘날의 천문 관측기구의 **모습**을 비교하자.

여기서는 **성능**이다. 쓰임일 수도 있다. ‘모양’이나 ‘생김새’ 또는 ‘형태’를 쓸 수도 있겠으나 교육상 요구되는 것은 ‘성능 비교’라고 하겠다.

여러 가지 낱말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일수록 뜻이 더 모호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2] 옛날과 오늘날의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과목과 가르치는 **모습**의 차이는 어떠한가?

여기서는 상투를 틀고 배우던 모습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의 차이를 묻고 있다. ‘내용’이라는 적절한 낱말을 쓰지 않으면 ‘모습’이라는 말의 뜻대로 상투를 틀고 배우던 모습이나 칼을 차고 가르쳐 주던 선생에 대해 대답하게 될 것이다.

[23] 개인들로 구성되는 전체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여기서는 **짜임**이다.

[24] 조상들의 불의 이용 모습을 용도별로 정리한다.

여기서는 불의 이용 **방법**이다. ‘식량 구입 모습 알아보기’에서도 ‘방법’이 적절한 말이다.

[25] 각자의 가정 상황을 대가족과 핵가족으로 나누어 생활 모습

을 대강 알아본다.

여기서는 생활 **방식**이다.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려면 대가족과 핵가족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막연하게 ‘생활 모습’이라고 하면 대가족이나 핵가족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명 생활의 변화, 즉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냉장고의 등장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 옛날의 가족 상황 모습을 조사 발표한다.

여기서는 ‘가족 상황 모습’이 아니라 그대로 가족**생활**이다.

[27] 보릿고개의 의미와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 발표하자.

여기서는 보릿고개 때의 농민들의 생활 **형편**이다. 즉 생활**상**이다.

[28] 조상들의 산업 발달을 위한 **모습**을 알아본다.

여기서는 산업 발달을 위한 **노력**이다.

[29] 삼국 시대의 문화의 수입과 전파 모습을 지도에서 찾아라.

여기서는 전파 **경로**이다.

[30] 독립신문의 **모습**은 순 한글과 영문으로 활자화한 것이다. ‘종이’에까지 ‘모습’이라는 말을 썼으니 한심하다. 여기서는 **체제(體裁)**이다.

[31] 부족한 자원의 **충당 모습**  
부족한 자원의 **충당 문제나 방법**이다.

[32] 조선 시대의 의료 기관과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기서는 그 **역할**이다. **소임**이나 **구실**도 될 것이다.

[33] 이조의 대표적 건축물인 남대문의 **모습**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남대문의 **구조**라야 한다. 눈요기를 위한 모습이나 모양이 아니라 건축상의 ‘구조’나 **형식** 또는 **양식**에 대한 질문이어야 어울린다.

[34] 우리나라에서의 가족계획의 **모습**을 알아보자.

여기서는 **상황**이다. 가족계획의 모습이라고 하면 ‘성교 행위의 실태’라는 엉뚱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현황**도 좋다.

[35] 우리 강산의 **모습**은 아름답

답기로 유명하다.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라도 쓰임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그 비슷한 낱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모습’보다 **경관**이 더 적절하다. **경치**도 좋다.

[36]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에 힘썼던 김정호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김정호의 **의지**이다. 주름 잡힌 얼굴 모습이 아니라 지도를 완성코자 하는 굳은 의지이다. 의지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다.

[37] 사회생활에서 옛날과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자.

옛날과 다른 **점**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38] 조상들의 자급자족의 **생산 모습**을 찾아보자.

여기서는 생산 **활동**이다.

[39] 없어져 가는 한옥의 전통적 **모습**에서 민족 고유의 주택미를 찾는다.

여기서는 사라져 가는 한옥의 **건**

**축미**이다.

[40] 불을 열로 이용하는 조상들의 **모습** 조사하기.

여기서는 조상들의 **지혜**이다. 슬기도 좋을 것이다.

[41] 책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학급에 있는 책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책에 대한 **관리 실태나 보관 상태** 등이 적절하다.

[42] 보올 탭을 이용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서 그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작동하는 **원리**이다.

[43]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어떠한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움직임이다.

[44] 한 편의 문장에 쓰인 단어는 필자가 나타낸 생각의 마지막 **모습**이다.

여기서는 **옹어리**가 좋다.

[45]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한 자료와 행적.

여기서는 **자세** 또는 **태도나 철학**

과 같은 뜻일 것이다.

[46] 가계,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모아야 한다.

여기서는 **내력**이나 **혈통**을 뜻하는 말이 더 적절하다.

[47] 글도 겉으로만 파악해서는 그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속성(屬性)**이 좋을 것이다.

[48] 은하계와 우주의 **모습**을 하나하나 밝혀 가고 있다.

여기서는 **신비**나 **비밀**이 좋다.

[49] 한 동네의 모습을 산등에 올라서서 조망하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다. 그대로 ‘산등에 올라서서 한 동네를 조망한다’ 면 더 자연스럽다.

[50] 국민 악파의 음악은 오늘 날에 와서 다시 민족적 소재를 현대 음악에서 사려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51] 띄뱃노래를 하는 **모습**

이것은 음악 교과서에서 어느 사진에 붙인 설명이다. 노래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장면**이다.

[52] (관현악단을 지휘하는 사진 설명에) 지휘 **모습**

여기서의 모습은 지휘 장면도 될 수 있으나 사진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지휘자의 지휘 **자세**였다.

[53] 단어·문장·문단이 글의 부분이라면 구상에 의해 글은 그 전체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서는 **윤곽**이 좋을 것이다.

[54]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와 어울릴 때 소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을 안다.

볼 수도 없는 ‘소리’에 모습을 쓴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국어 교과서를 쓴 사람들의 낱말 실력이 이 정도니 다른 사람들의 낱말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여기서는 소리의 **느낌**이 좋을 것이다. 요컨대 글을 너

무 쉽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  
다.

앞의 예문은 모두 1985년 4월 30  
일까지 조사한 것들이고, 《말과 글  
》， 그리고 월간 《학원》과 나의 저  
서 《시끄러운 소리와 헛소리》에  
발표한 것을 한데 묶은 것이다.

1985년 5월 1일 이후에 조사한  
것들을 가지고 예문을 더 추가하겠  
다.

[55] (바둑에서) 백의 궁도가  
넓어 잘 안 될 것 같으나 이런 **모습**  
일수록 이외의 허점도 있는 법이다.

여기서는 궁도(宮圖)이다.

[56] (바둑에서) 공격은 거의  
짜인 **모습**인데, 이 시점에서 첫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한 수만 표시하  
십시오.

여기서는 형세이다.

[57] 제 4~5연은 무대 안팎의  
**모습**과 승무의 전아(典雅)한 율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목이  
다.

여기서는 무대 안팎의 **분위기**이  
다.

[58] 작자 자신의 내적 정신의  
어떤 실체가 인격화된 **모습**과 만나  
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형상**(形象)이다.

[59] 글을 구성하는 시간적 구  
성에는..... 첫째 것은 전기(傳記)에  
서, 둘째 것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 전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자 하  
는 것은 어떤 장면이 아니라 시간적  
구성에 대한 **형식**이나 **기교**의 확인  
이다.

[60] 전쟁터에 나가 고생하고  
죽어가는 군사들의 **모습**이 골계(滑  
稽)로 감싸여 나간다.

고생하고 죽어가는 군사들의 **처  
절함**이 익살로 감싸여 나간다.

[61] 각 작품에 드러나는 지은  
이의 개성과 인간(人)의 **모습**을 이  
해한다.

괄호 속의 ‘**삶**’이 전체를 치졸한



글로 만들고 말았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성과 인간의 ‘삶’을 이해한다.

㉡ 개성과 삶의 ‘속성’을 이해한다.

예문의 ‘모습’은 ㉠의 ‘삶’이나 ㉡의 ‘속성’을 쓴다면 불필요한 낱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문의 ‘모습’은 ‘삶’이나 속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2] 애상과 탄식, 정한의 파토스적 좌절 체험으로부터 한국 시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다.

한국 시의 틀을 바꾸어 놓는다.

[63] 전화를 거는 **모습** 등도 각양각색입니다.

전화를 거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이 예문은 짜증스러운 공중전화 이용에 대해 방송국 기자가 한 말이다. 고발하고자 한 것은 못난 얼굴이

나 건방진 자세가 아니라 전화기를 망가뜨리기 십상인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64] 우리가 배운 국어나 영어의 이모저모를 살핍으로써 언어의 **모습**을 짐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는 언어의 **본질**이다.

[65] 요즈음 (버스 정류장에서) 줄어 서는 **모습**은 생활화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버릇**이나 **습관**이다.

이상의 예문에서 ‘모습’에 자리를 빼앗긴 낱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는 ‘모습’과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으나 말이 지닌 빛깔에 따라 구별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예문에서 두 세 가지의 뜻으로 갈라진 말들을 각각 따로 계산하였다. 다른 예문에서 그중 어느 하나가 적절한 말로 쓰일 때가 있을 것이므로 각각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가장 심하게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말로는 방법 • 양식 • 상황 • 방식 • 목적 • 상 • 속성 • 자세 • 형식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 적은 말을 쓸 자리에 언제나 ‘모습’이라는 엉뚱한 말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지고 보면, 낱말 선택에 신경을 쓰지 않은 글들이 판을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의 저자들은 ‘모습’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문법적 겹말, 일본말 투, 외국어 남용에서도 그러한 비난을 들을 만한 글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증거가 많이 있기에 하는 소리다. 아무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낱말 하나라도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자는 것을 부탁한다.

## 옛 먹어라

어느 한글학자의 저서에 ‘옛 먹어라’라는 대학가의 ‘은어’에 대한 글이 있다. 이제 몇 줄만 소개하겠다.

「따라서, ‘마돈나’란 ‘마시고 돈내고 나가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친구는 상대방에게 반격을 가해, 옛을 물고 입 다물 듯, 쓸데없는 말 말고 입 다물라고 ‘옛 먹어라’라고 한 것이다.」

(《국어의 표현과 순화론》에서)

나는 이 글을 몇 번 읽어 보았다. ‘옛 먹어라’의 어원으로 소개한 것인지, 아니면 대학가의 은어로서만 소개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만일, 단순한 은어로서 소개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옛 먹어라’가 대학가의 은어에서 처음으로 생긴 말인 줄 알고 쓴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예능 집단인 ‘남사당패’들은 옛날부터 외부인과 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불편이 없을 만큼 풍부한 ‘은어’를 써 왔다. 그 은어 중에 ‘옛’이 있고 그들이 쓰는 말에 ‘옛 먹어라’가 있으니 이 말의 유래는 요즈음의 대학가가 아니라 훨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 뜻이 좋지 않다. 그 좋지 않은 뜻이 “옛을 물고 입 다물 듯…….”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그 글의 필자가 진짜 뜻을 미처 모르고 “옛을 물고…….”로 소개한 것인지 그 의문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다.

남사당패들의 은어인 ‘옛’은 ‘뺨’과 함께 여자의 성기(性器)를 뜻한다. 그리고 ‘옛 먹어라’는 바로 ‘○○ 먹어라’이다. 그런 뜻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 말을 예사로 쓰고 있으니 그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남사당패의 은어에서 기가 막힌 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썼을 것이 분명한데, 지금은 본래의 뜻도 모르는 주부들까지 이 말을 거침없이 쓰고 있어서 내가 먼저 부끄러워질 때가 많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옛 먹어라’라는 말은 어감이 나쁘다. 점잖지 못한 사람들의 상소리로서 들을 수 있었던 ‘○ 먹어라’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 먹어라’라고 말하기가 민망스러워서

거부감이 적고 듣기에 괜찮으라고 해서 ‘옛’으로 바꾸어 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 이 말은 점잖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 민족 주체성을 잃은 용어들

흔히 쓰이는 말이기는 하나 따지고 보면 주체성을 잃어버린 말들이 꽤 있다. 그 말의 거의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격하시키기 위해 썼던 말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 한일 합방

1910년 8월 29일은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날이다.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날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경술국치(庚戌國恥)’하고 불려왔다. ‘경술년에 있었던 국가 수치’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합방시

켰다’면서 ‘일한 합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제가 이 나라를 지배한 동안 이 말은 많이 쓰였다.

해방이 된 뒤로도 이 말은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쓰였고, 특히 국사 교과서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쓰였다. 지금도 많은 사람, 많은 신문, 많은 책에서 이 말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교과서에서는 이 말이 ‘국권 침탈’이니 ‘경술국치’로 쓰이고 있다. 내가 보고 넘기는 교과서에서는 ‘한일 합방’이란 용어를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합방’이라는 말은,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는 것을 뜻하나 따지고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굴복시켜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을 뜻한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국에 패망하자 우리 삼천만은 일제히 ‘해방 만세’를 외쳤다.

만일, 1910년의 일이 ‘합방’이었

다면 1945년의 일은 ‘해방’이 아닌 ‘분리’라야만 논리상으로 타당하나, 삼천만 배달민족은 8·15를 ‘분리’ 아닌 ‘해방’으로 뜻을 박고 말았다. 그리고 그 말에 이의를 낸다거나 저항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1910년의 일이 주권 강탈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열들이 주권 회복을 위해 피를 흘렸고, 삼천만이 태극기를 흔들며 해방 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30년 넘게 ‘한일 합방’이라는 말을 버젓이 써 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일제교육 세대 또는 친일파들이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고쳐지지 않고 방관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글프다.

날말 자체의 풀이하면 이긴 나라의 이름이 앞에 오고 진 나라의 이름은 뒤에 오는 것이 상식이다. 다시 말해서,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 한국이 일본을 합병시켰을 경우에 써야만 합당한 명칭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다. 강요된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에 그 문서에는 ‘일한

합방'이라는 말이 있었을 것이지만, 약탈 행위를 미화시킨 그 말이야 더욱 쓸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이라는 말이 앞에 온다고 해서 나라의 체면이 서는 것은 아니며, 조상들이 썼던 '경술국치'나 '국권 침탈'이 우리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말이다.

###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이것도 우습기 짝이 없는 용어다. 전쟁에 진 나라의 이름이 앞에 오고 이긴 나라의 이름이 뒤에 오니 객관성이 없는 말이다. 감정 치사로서는 이해가 가지만 역사사건에 대해서는 바른 명칭을 만들어 써야 한다.

두 전쟁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는 공통성은 있으나 그 전쟁에 꼭 나라 이름을 붙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그 전쟁을 자기들 식으로 '일청 전쟁' 또는 '일로 전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낱말에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따르지 않겠다는 데서 '청일'이니 '러일'이라는 우스운 이름이 생겼지만 이 명칭은 달리 생각해야 한다.

프랑스의 삼림 요원 양성소에서 우리가 말하는 '러일 전쟁'을 '삼림 전쟁'이라고 부른다. 세계의 전쟁사에서 삼림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꼭 한번 있었는데, 그것이 곧 1904년의 이른바 '러일 전쟁'이다.

'러일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의 원인 같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삼림 전쟁'이라고 하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러일 전쟁'의 원인을 보면 '러시아의 남진 세력을 막기 위한 전쟁'이라고 되어 있다. 부동항을 노리는 러시아를 막는다는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본의 야욕 같은 것은 감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부터 일본식이다. 일선 교사들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학계에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친일 사관'의 입김이 우리 역사의 상장 부분에 일본 냄새를 풍기게 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 이조(李朝)

‘이조’니 ‘이씨 왕조’니 ‘이씨 조선’이라는 말은 지금도 많이 들을 수 있다. 이 말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우리의 왕실을 자기 나라의 고을 군자를 부르듯 격하시켰던 것들이다. ‘조선’이라는 엄연한 독립 국가를 두고도 자기들의 지방 군주를 부를 때에 성(姓)을 붙였던 식으로 ‘이씨 조선’이니 ‘이씨 왕조’라고 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고을 군주를 그들의 발음으로 ‘○○한(藩)’이라고 불렀다. 이 ‘藩(번)’은 지방을 다스려서 조정을 지키던 영주인데, 번국(藩國)과 같다. 사쓰마한(薩摩藩)이라는 것은 규슈의 가고시마 지방의 영주이다. 또 넓은 영토를 가진 무사에게는 다이묘오(大名)라는 이름에 그 다이묘오의 성을 붙여서 썼다. ‘도꾸가와 막부(德川幕府)’의 ‘막부’라는 것은 무신(武臣) 정권의 최고 권력 기관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도 실권자의 성을 곧잘 붙여서 썼

다.

그들은 이러한 버릇으로 ‘조선 왕조’가 ‘일본 황실’과 대등해지는 것을 싫어했음인지, 격을 낮추어 ‘이씨 조선’으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아무튼 ‘이씨 조선’이나 ‘이씨 왕조’는 ‘도꾸가와 막부’니 ‘미니모토 막부’ 따위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말이다. 특히 ‘이왕가(李王家)’는 그 격이 더 떨어진 말이어서 우리로서는 쓰기조차 민망스럽다. 무력했던 왕실이었을망정 우리의 왕실이었으니 우리의 체면도 살려야 하겠다.

### 민비(閔妃)

엄연한 왕비인데도 ‘왕비’라는 말보다 ‘민비’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던 비극의 주인공은 그가 죽은 뒤에 가서야 ‘명성황후(明成皇后)’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민비’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왕비’를 격하한 칭호이다. ‘민 왕비’를 줄인 말 이기는 하나 공식 칭호가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때까지 그 칭호를 잘 쓰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역사책에서는 ‘민비 시해 사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모두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신대륙(新大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대륙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어닥치게 된 뒤로 유럽에서는 그곳을 가리켜 ‘신세계’니 ‘신대륙’이라고 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개항 이후로 일본을 통해 서양 문화를 무턱대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대륙을 가리켜 서양식으로 ‘신대륙’이라고 불러왔으나 여기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신대륙’은 아메리카 대륙만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도 포함된다. 따라서 ‘신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의 대명사가 될 수는 없다.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 대륙과 아시아가 베링 육교(陸橋)에 의해 이어져 있을 때에 벌써 동양인들이

그곳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고, 그들에 의해 마야 문화나 아즈텍 문화가 꽃피고 있었는데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라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서양식 해석은 서양에서나 써야지 동양인까지 덩달아 써서는 안 된다. 인디언이 동양인의 피를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역사는 진실 되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양 문명이 아무리 앞섰다고 하더라도 거짓말까지 앞설 수는 없다.

### 미국 국무성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행정부 조직이 비슷하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행정부의 각 부처를 부르는 이름은 우리의 것과 같지 않고 일본의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불러주고 이게 될 말인가? 미국 ‘문교부’라야만 우리의 문교부와 격이 같아지는데도 일본식으로 따르다 보니 ‘문부성’이니 ‘국무성’이 되고 말았다. 누구의

잘못일까?

일본에서는 행정 부처의 이름이 문부성이니 외무성이어서 그들이 미국의 행정 부처를 국무성이니 농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문교부 • 외무부 식으로 부르고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우리 식으로 불러야 옳다. 이것도 주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 토박이 마을과 땅 이름

권순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토박이 땅이름》, 《박 추억 속의 그리움》, 《한글과 농촌 문화》 씀.

### # 화곡리(化谷里)

신라시대 화랑들이 도를 닦고 훈련하던 곳이라 한다. 화랑들은 젊고 꽃처럼 화려하다고 해서 화실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 영조 때 ‘화계’라는 호를 가진 유의진 선비가 정자를 짓고 제자들을 양성한 곳이다. 그 선비의 호를 따서 화실이라 하거나, 아니면 꽃이 많이 피는 곳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또 다른 말로 이곳 산 모양이 꽃 같다고 해서 불인 이름이라고도 한다. 또한 옛날에 꽃피는 봄날 임금이 이곳에 자주 행차했다고도 한다. 그러하다가 일제시대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화곡리(化谷里)라 하였다. 화실, 벤다골, 도꼬불을 화곡 1

리. 소리미, 어령이, 문바우를 화곡 2리라 하였다.

### 화곡 1리(벤다골, 화실, 도꼬불)

#### 벤다골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이 지방에서는 삐딱하다 해서 벤다골, 또는 둥굴의 변두리라 해서 변다골, 별만 나면 따뜻하다 해서 뻗다골이라 한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1988년 2월 초 이곳 산 아래 사는 한영훈 씨가 돼지우리를 지으려고 터를 골랐다. 그러던 중 신라 시대 것으로 추측되는 돌 흙 속에 화장한 사람의 뼈를 넣은 골호와 흙으로 만든 십이지신상을 발견했다. 이것으로 보아 이곳을

옛날에는 빠다진골, 뺏다골이 밭을 변화에 의해 벤다고로 된 듯 하기도 하다. 그리고 한영혼 씨 집 주위에 고분군이 밀집한 것으로 보아 죽은 사람의 뼈를 많이 다지고 묻은 곳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뺏다골이 벤다골로 된 것 같다. 안동 권 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동제: 화실과 같이 안 지낸다.

### # 또박이 땅이름

\* 바우골 - 바위가 있는 골짜기. 못 아래 한 기, 못 위에 한 기가 있는데 모두 고인돌이다.

\* 방구도거리 - 바위가 있는 논. ‘바위’를 이 지방에서는 ‘방구’라고 한다.

\* 금실시불구시 - 금실에 있는 수렁. ‘수렁’을 이 지방에서는 ‘시불구시’라 한다.

\* 덕고개 - 벤다골에서 둥굴 중 각단, 술안각단으로 가는 고개. 둥굴에서는 산등으로 오다가 중간쯤

와서 박수골로 가는데 등고개가 덕고개로 변한 것 같다.

\* 앞거랑 -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

\* 금실못 - 금실에 있는 못.

\* 금실너머 - 큰금실 너머 있는 골짜기.

\* 주산맷돌바우 - 바위가 둥근 것이 두 개 겹쳐져서 맷돌같이 생긴 바위.

\* 바우골못 - 바위가 있는 골짜기의 못. 못 아래위로 고인돌이 1기씩 있다.

\* 주연지 - 신안주 씨 문중 소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막은 못. 산이 연꽃 모양 같다하여 주연지라 불려오고 있다. 2008년 10월 못과 논을 정비하면서 다시 못 이름을 다시 지을 때도 주연지라 불렀다. 주 씨들 산이 연꽃 같이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 주산 - 신안 주 씨 문중 소유의 산.

\* 거랑논 - 냇가 논. 내를 이

지방에서는 거랑이라 한다.

\* 금실 - 금이 난 산골짜기. 지금은 금을 판 구덩이가 있다. ‘실’은 ‘골’을 말한다.

\* 방안지 - 방안의 못이란 뜻. 다시 말해 마을 안에 있는 못. 이곳은 별만 나면 방안처럼 따뜻한다는 말이 있다.

\* 뚝딸미기 - 산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듯 한 모습을 한 곳. 신안주 씨 소유의 문중 묘와 산과 논, 재실이 있는 곳이다. “주갓미기”가 “뚝딸미기”로 변한 것이다. 주 씨 묘와 논과 산의 목 또는 들머리란 뜻이다. 고속철도 공사로 인해 재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논과 산은 그대로 있다.

\* 동네등 - 마을 안에 있는 산등.

\* 금구덩이 - 금을 파낸 곳.

\* 불선고개-벤다골에서 둥굴불선 곳으로 넘어가는 고개.

신라 때 화랑들이 많이 활동하던 곳이라 해서 화랑을 꽃에 비유해서 화실이라 하는데 화랑과 관계가 있는 성부산 아래 있는 마을이다.

훗날 조선 영조 때 ‘화계’라는 호를 가진 유의건 선비가 이곳에 정자를 짓고서 제자를 양성한 곳으로, 이 선비의 호를 따서 ‘화실’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또 이 골짜기가 꽃같이 아름다우며 산의 모양이 꽃같이 생겼고, 꽃이 많이 핀다 하여 그렇게 불린다고도 한다. 그리고 신라 때 햇불을 올린 성부산 아래 있는 마을이라 해서 옛날에는 화(火)실이라 한 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화(花)실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실은 골을 뜻하는데 신라시대부터 쓰인 우리말이라 한다.

## # 동제

### 화실

나무: 포고나무 한 그루. 나이 200년 정도.

제일: 정월대보름 날(음 1월 15일) 새벽.

제관: 선정해서 지낸다.

제물: 마을 집집마다 돈을 거두어서 장만한다.

2004년 1월 경부고속철도부지에 들어가서 베어지고 안 지낸다.

### # 토박이 땅이름

\*. 새미당 - 샘이 있는 곳으로 이 샘에 많이 빌었다 한다. 당이란 비는 곳이란 뜻이다.

\*. 팔바위골 - 바위가 여덟 개 있는 골짜기.

\*. 따박골 - 딸기나무가 많이 있는 골짜기. 딸밭이 따박골로 바뀐 것이다.

\*. 새창못안 - 새창못 안에 있는 들.

\*. 새창못 - 새창이란 동쪽 창이란 뜻인데 해 같이 둥근 산이 있는데 동쪽에 뜨는 둥근 해 같은 산이 있는 못이란 뜻이다.

\*. 수리줄 골짜기 - 이 산 위에

서 기우제를 지냈다 한다. 기우제를 지냄으로 해서 물 내려주는 골짜기다. 이 마을에서는 수리줄 골짜기에 흘안개 넘어가면 비가 온다고 한다. ‘흘안개’란 흘러가는 안개’를 말한다.

\* 방매 - 매를 방목하던 산.

\* 뒫들 - 마을 뒤에 있는 들.

\* 선작골 - 선 굵는 일을 하던 곳이라 함. 이곳은 신라시대 토기를 굽던 도요지가 있던 곳이다. 토기를 구울 때 선을 굵는 일을 하던 곳이란 뜻으로 선작골이라 함.

\* 섬거랑 - 이 마을의 가장 위에 있는 내라 선두에 있는 내란 뜻. 선두거랑이니 선거랑 하던 것이 섬거랑으로 부르기 쉽게 된 것이다.

\* 서당골 - 서당이 있던 골.

\* 서당 너메 - 서당 너머에 있는 들. 동굴의 곡산 한 씨 서당이 있는 너머란 뜻.

\* 돌담밖 - 돌담이 있는 바깥.

\* 개오죽 골짜기 - 개오죽 나무가 있는 골짜기.

\* 큰금실 - 금이 났다는 골짜기로서 큰 골짜기.

\* 점태논 - 옹기를 구웠던 곳에 있는 논.

\* 널나무골 - 널나무를 할 만큼 크고 굵은 나무가 있는 산골짜기.

\* 강등산 - 화계 유의건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서당의 뒤 산이다. 강당산이 부르기 쉽게 변하여 강등산이 되었다.

\* 새미골 - 샘이 있는 골.

\* 새각단 - 이 마을에서 새로 생긴 집들이 있는 마을.

\* 큰우물 - 커다란 우물이 있는 곳.

\* 골목나무 - 당나무가 있는 곳을 말한다.

\* 말허리산 - 말허리 같이 잘록한 산등성이.

\* 가마골 - 옛날 도요지가 있던 곳.

\* 소두방산 - 성부산의 별명으로 솔뚜껍같이 생긴 산이라 해서 소두방산이라 한다. 이 산에 얹힌 전설이 3가지가 있는데 모두 삼국

유사에 수록되어 있다.

\* 새창만디 - 새창못 위에 있는 산마루. 해같이 둥근 산이 있는데 해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해가 뜨는 창이란 뜻이다.

\* 돌담모퉁이 - 돌담이 있던 모퉁이. 모퉁이를 이 지방에서는 모퉁이라 한다.

\* 화실못 - 지금의 화곡 저수지를 막기 전에도 못이 있었는데 신라 때 못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이 부근에 벼슬꺼나 한 큰 부자가 살았는데 부인이 매우 아름다운 미모인데 질투심이 강해 남편이 벼슬이라도 하면 50리 정도 마중을 나갔다고 한다. 남편이 예쁜 여자 종의 손이라도 잡으면 그 여자 종을 데라고 가서 손목을 잘랐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 종들이 이 못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 부부가 살아생전에 모두 망해 버렸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집주인이 남녀 종들을 혹독하게 일을 시키기에

늪은 종이 아들들에게 분장을 하여 안주인의 아들 3형제에게 보이니 모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주인이 종들을 모아놓고 늪은 종 부부를 작두로 목을 잘라 이 못에 버렸다 한다. 그런데 이후로 이 집은 자손이 끊기고 망해버렸다고 전해진다.

\* 새창 - 해 같이 둥근 산이 있는데 해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동쪽의 창이란 뜻이다. 그런데 동쪽으로 향해 있는 해 같이 둥근 산이란 뜻이다.

\* 대롱골 - 대나무가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데 대나무로 대롱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

\* 섬거랑보 - 섬거랑에 있는 보.

\* 윗보 - 이 마을의 위쪽에 있는 보.

\* 중보 - 이 마을의 중간에 있는 보.

\* 아래보 - 이 마을의 아래에 있는 보.

\* 주산맷돌방구 - 주산에 있는 바위로서 맷돌같이 생긴 바위.

\* 소두방산 맷돌방구 - 소두방산에 있는 바위로서 맷돌같이 생긴 바위.

\* 못안보 - 화실 못 안에 있는 논들에 물대는 보.

\* 삼랑운골 - 세 갈래 골목길에 있는 우물이란 뜻.

\* 부처 골짜기 - 소두방산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는 골짜기.

\* 칠성당 - 소두방산 서쪽에 있는 돌무더기인데 옛날에 칠성을 많이 드리던 곳이라 한다.

\* 운골 - 구름이 많이 낀다는 골짜기.

\* 새창만디운골 - 새창 쪽에 있는 우물.

\* 갯골짜기 - 머리에 쓰는 갯같이 생긴 골짜기.

\* 큰 각단 - 이 마을에서 제일 큰 마을.

\* 화곡저수지 - 본래부터 못이 있었는데 이 못이 신라시대 못이

라 한다. 지금 저수지는 1959년도에 막았다고 한다.

\* 아래각단 - 이 마을 아래쪽에 있는 마을.

\* 혁골짜 - 헛진 골짜기 한쪽 구석진 곳의 골짜기.

\* 섬거랑들 - 섬거랑 봇물을 대는 논들.

\* 성부산 - 이 마을에서는 소두방산이라 부르는데 솔뚝경 같이 생긴 산이라 한다. 이산에 대한 전설은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3가지가 전한다.

신라 서울 경주에 사는 사람이 벼슬을 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시켜서 밤마다 이 산 위에 올라가서 횃불을 들게 했다. 그 횃불을 보고 도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왕도 근심스러워서 일관에게 물어 보니 한 집의 아들이 죽고 아버가 울장조라 하였다. 그래서 왕이 저 산의 불을 없애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겠다고 했다. 그때 그 아버가 응모하였는데 그날 밤 아들이 산에서 내려오다 범에게 물려 죽었다

한다. 그러니 아들이 죽고 아버가 울기 마련이다.

또 신라군이 한산성에서 고구려, 말갈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김유신 장군이 달려와서 이 산 어딘가 단을 쌓고 빌었다. 그랬더니 이 산에서 큰 독만한 불덩이가 적진의 진지에 떨어져서 신라군을 구했다. 그것과 문무왕 서제차득공이 무진주 안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산 밑에 있는 땅을 무진주 상수리의 소목전을 삼고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였다 한다. 이곳에 풍년이 들면 무진주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면 무진주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

2011년 3월 18일 성부산 꼭대기에 표지석이 세워졌다. 필자가 건의하고 당시 내남면장인 김영제 씨가 주선하여 세우게 된 것이다.

### 도꼬불

산골짜기가 도끼 같이 생겨서 나무에 도끼를 찍으면 불이 난다

는 데서 도끼불이라고도 한다. 옛날 나무꾼들이 나무 하러 많이 다니던 곳이다. 이곳에 신라 때 못이 있었다는데 하도 경치가 좋아서 임금님이 자주 행차하여 봄에 꽃놀이 했다고 한다. 그러니 ‘돋꽃불’(돋아나는 꽃이 불처럼 타오른다는 뜻)이 도꼬불로 발음이 변한 것이 아닐까? 이곳에 옛날의 못터가 아직 남아 있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시대 어느 왕이 이곳을 지나다가 도끼로 거저나무(자작나무의 사투리)를 찍으니 불이 났다 하여 도끼불 하던 것이 도꼬불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도깨비불이 많이 나타난 골이라 도끼불, 도꼬불이라 했다는 설과 이곳은 수많은 골짜기라 옛날 산적들이 많이 생활하면서 밤이면 도깨비불같이 이 골짜 저 골짜 다니면서 불을 밝히었기에 도꼬불이라 하였다 한다. 이곳에 일구었던 논밭 터가 곳곳에 있으나 요즘은 사람이 살지 않고 채피나무와 자작나무만 많이 자라고 있다.

## # 토박이 땅이름

\* 후평지, 도꼬불못 - 화곡마을 뒤에 있는 들에 물대기 위해 막은 못. 도꼬불 아흔아홉 골짜기 물이 흘러 내려도 못 깊어질 만큼은 안 된다는 못. 고이는 물 양이 그만큼 안 된다는 못인데 양쪽 산이 돌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이 흘러와도 못에 물이 고이지 않고 새어 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 양달갯 - 도꼬불 산골짜기를 양편으로 나누었을 때 양지바른 곳. 북쪽편 화실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이다.

\* 음달갯 - 도꼬불 산골짜기를 양편으로 나누었을 때 음당진 곳. 남쪽편 화실에서 들어가면 왼쪽이다.

\* 새뺨골 못 - 지금은 못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못 안에 샘이 있었다 해서 일명 ‘새미당못’ 이라고도 했다 한다.

\* 은장골 - 은이 나던 곳. 지금



도 은을 판 흔적이 있다고 한다. 은판골이 은장골로 바뀐 것으로 보다. 그리고 시신을 임시로 묻은 곳이라고도 한다.

\* 화장골 - 옛날에 이 골짜기에서 화장을 많이 하였다고 전한다. 범에게 물려 가서 죽은 사람을 화장했던 곳이라 한다.

\* 소구리골 - 소구리같이 생긴 골짜기. ‘삼태기’를 이 지방에서는 ‘소구리’라 한다.

\* 북골 - 도꼬불 골짜기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골.

\* 속골 - 도꼬불 골짜기 안에 깊숙이 들어간 골짜기.

\* 솟돌난등 - 칼, 낫을 가는 솟돌이 난 산등.

\* 팔발골 - 화전민들이 땅을 파서 일군 발골.

\* 질거리미 - 두르지 않고 바로 가는 길. 바로 가는 길을 이곳에서는 질러 같다고 함.

\* 안거다미 방구 - 돌을 던져도 잘 안 걸쳐진다는 바위. 이 바위에 돌을 던져 걸쳐지면 아들 낳고 안

걸쳐지면 딸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다. ‘아들담이’ 바위라는 뜻인데 ‘아들담이’가 ‘안거다미’로 바뀐 것이다.

\* 안소바탕 우물 - 안소바탕에 있는 우물. 옛날에 나무꾼들이 목을 축이면서 쉬던 곳이다.

\* 안소바탕 - 소를 많이 매어 놓고 혹은 많이 먹이던 곳. 소가 밟아 그 땅이 마당같이 단단하게 된 곳인데 산 깊은 안쪽 있는 것이 안소바탕이다. 바탕이란 단단한 바닥을 말한다.

\* 바깥소바탕 - 소를 먹이면서 매어 놓고 소가 많이 밟아서 마당처럼 단단하게 된 곳으로 바깥쪽에 있는 곳이다.

\*. 남간갯 - 남간 사람 소유였던 산을 말한다. 경주시 탑동 남간 사는 곡산 한 씨 묘가 있는데 진사를 한 사람 묘이다.

\*. 삼발티미 - 삼발 모퉁이. 모퉁이를 이 지방에서는 “모탕” 또는 “티미”라 한다.

\* 수박골재 - 이 근처에서 옛날에 수박을 많이 재배하였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둔웅 한여유라는 선비가 이 고개에서 쉬는데 수박 장수가 수박 한 지게를 지고 왔다. 그걸 보고 한여유가 수박 한 덩이를 달라 하니 안 주었다. 그럼 수박 씨앗이라도 하나 달라 하니 주기에 심었다. 그러니 금방 줄이 뻗어 나가면서 수박이 열렸다고 한다. 한여유가 수박 장수에게 ‘당신 지게를 보라. 수박 한 덩이가 없지.’ 하기에 살펴보니 정말 수박 한 덩이가 없어졌다고 한다. 한여유 선비가 ‘나는 지금 노자 돈이 없으니 고개 너머 큰 기와집에 가서 받으라.’고 했었는데, 수박 값은 받아 갔는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수박골재라 한다 한다.

\* 토갱길너머 - 산이 매우 가파른 꼬부랑 산길. 토끼는 산에서 쫓으면 요리조리 간다고 해서 꼬부랑 길을 토갱이 길이라 하는데 그 너머 있는 산골짜기를 말한다. “토끼”를 이 지방에서는 “토갱”이라

고 한다.

\* 새못안골 - 새어 나온 샘물을 보고 막은 못이라 한다. 또는 그 못 아래 도꼬불에 있는 후평지 못을 새로 막으므로 못의 안쪽에 있는 못이란 뜻이다. 지금도 옛 못뚝의 흔적이 있다. 새로 막은 못의 안쪽 골짜기란 뜻.

\* 부앵바우 - 옛날 부엉이가 와서 많이 울던 바위.

\* 새미당못 - 옛날 물이 새어 나오는 샘이 있었다는데 많이 빌고 하던 곳에 막은 못.

## 화곡 2리(소리미, 어렁이, 문바우)

### 소리미(송림)

마을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솔림이라 한 것이 부르기 쉽게 소리미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솔 송(松)자와 수풀 림(林)자를 써서 송림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에서는 전통을 잇기 위해 소나무 숲속에서 동제를 지내고 있다.

## # 동제

나무: 소나무(소나무 숲속에 있음) 두 군데 재단이 있다. 나이 100여년.

제일: 정월 대보름날(음력 1월 15일).

제관: 선정한다.

제물: 동제답 두 마지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장만한다.

## # 토박이 땅이름

\* 무제단 산 - 무제(기우제)를 지내던 산.

\* 대문달 고개, 대문고개 - 대문을 달 만큼 좁은 고개. 일설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이여송’이 산의 혈(줄기)을 잘랐는데 대문 달 만큼 좁게 잘랐다 해서 이렇게 부른다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왜적은 이곳에 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술숲이 우거진 마을은 피해 갔다고 한다. 이여송은 왜적이 오

는 곳을 가지 않고 피해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한다.

\* 땅골 - 마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골짜기. 판골이 땅골로 된 것이다. 또는 옛날 절이 있던 골짜기로 단이 있던 곳이라 해서 단골이 판골로 땅골이 되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절터가 있다. 돌물통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누군가 팔았다고 한다.

\* 서나무 위 - 서나무가 있는 위쪽의 들.

\*. 냉징, 냉정 - 찬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는 들 이름. 냉정을 부르기가 쉽게 냉징이라 한다.

\* 당고개 - 성황당나무가 있고 돌을 많이 모아 둔 고개. 이 고개 넘어갈 때 돌을 세 번 던지고 침을 세 번 뱉는다 한다. 돌 세 번 던지는 것은 복이 오라는 뜻이고, 침 세 번 뱉는 것은 액이 물러가라는 뜻이다. 소리미에서 청각골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다. 이 당고개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옛날 장가 못간 몽달귀신(장가 못가고 죽은 총각귀신)은 무덤도 없고 제사도 안 지내주기 때문에 고개를 넘는 사람들을 언제나 괴롭혔다고 한다. 그래서 돌을 세 번 던지고 침을 세 번 뱉었다고 한다. 침 세 번 뱉은 것은 술잔을 3번 붓는다는 뜻이다. 초헌, 아헌, 종헌 세 사람이 붓기에 술이 세 잔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 세 번 던진 것은 재물이라 한다. 그러면 무사히 고개를 넘게 되었다고 한다.

\* 숲들 - 숲이 있는 들. 소리미 당수나무가 있는 들.

\* 옥비들 - 다섯 가지 비참한 일이 없다는 들. 이곳에 신라 시대 유리 도요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옥배를 옥비로 부르게 된 것이다.

\* 마당재 - 마당 같이 단단하고 넓은 고개.

\* 도장골 - 도장(창고) 같이 생긴 골짜기. 또는 도장에는 쥐가 많기 때문에 쥐같이 생긴 골짜기를 보고 도장골이라 한다고 함.

\* 병풍 바위 - 병풍같이 펼쳐진

바위.

\* 탕건 바위 - 탕건 같이 생긴 바위.

\* 팔발골 - 화전을 일구기 위해 땅을 파서 일군 밭이 있는 골짜기.

\* 난재 - 넘기기 매우 어려운 고개.

\* 자라등 - 냉정에 있는 산등인데 자라같이 생긴 산의 등. 이 산 등에 경주 최부자 윗대인 최국선의 묘가 있다.

\* 잣나무골 - 잣나무가 많은 골짜기.

\* 냉정 윗고개 - 냉정 고개 중에서 위쪽에 있는 고개.

\* 냉정 중고개 - 냉정 고개 중에서 중간에 있는 고개.

\* 냉정 아래 고개 - 냉정 고개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고개.

\* 안소리미 - 소리미 마을의 안쪽에 있는 골짜기.

\* 큰 도장골 - 도장에는 쥐가 많이 있기에 쥐같이 생긴 골짜기를 보고 일컫는데 큰 골짜기를 말함.

\* 작은 도장골 - 작은 도장골 골짜기.

\* 외빌 - 기와를 굽던 곳이란 뜻. 기와를 굽던 곳을 왓골 또는 윗골이라 한다. 기와를 굽기 위해서는 다듬고 빗어야 하기 때문에 외비 또는 외빌이라고 하던 것이 외빌로 불리게 된 것이다.

\* 냉정어기 - 냉정어귀에 있는 들. 이 지방에서는 ‘어귀’를 보고 ‘어기’라 한다.

\* 문디골 - 옛날 문둥이가 살았던 곳. 문둥이를 이 지방에서는 “문디”라 한다.

\* 제당 - 마을의 동제를 지내는 당이 있는 곳.

\* 마뚝 - 남쪽에서 북쪽으로 된 뚝을 말한다.

\* 재밭 골짜기 - 조를 심은 골짜기. “조”를 이 지방에서는 “재”라고 한다.

\* 기린재 - 기린 목같이 길게 생긴 고개를 말한다. 소리미에서 마신 양지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동사걸 - 옛날 이 마을 회의

를 하던 동사가 있던 앞내. 내를 이 지방에서는 “걸”또는 “거랑”이라고 한다.

\* 금웅텅 - 금을 파낸 웅덩이. 금을 파내고 나니 웅덩이가 생긴 곳을 말한다. 웅덩이를 이 지방에서는 웅텅이라고 한다.

\* 수무산 도래술 - 옛날 시모살이 하던 묘 둘레에 있는 도래술을 말한다. ‘시모산’을 ‘수무산’이라 불린 것이다.

\* 붓돌백이 - 붓 같이 생긴 돌이 박혀 있는 곳.

\* 앞거랑 - 마을 앞에 있는 내를 말한다. “내”를 “거랑”이라 한다.

\* 참물웅텅 - 물이 아주 찬 웅덩이를 말한다. 웅텅은 웅덩이를 말한다.

\* 숲보 - 숲들에 물대는 보.

\* 공굴다미보 - 다리 밑에 있는 보. 다리를 공굴이라고 하고 다미는 가까이라는 뜻이다. 공굴은 콘크리트 다리의 뜻이다. ‘콘크리트’를 이 지방에서는 ‘공굴’이라고 하

기 때문에 콘크리트 다리를 보고  
공굴이라고 한다.

\* 양달보 - 양달 쪽에 있는 보

\* 봇골보 - 봇골에 있는 논에  
물 대는 보

\* 음달보 - 음달 쪽에 있는 보

\* 땅골보 - 땅골에 있는 보.  
“땅골”은 절이 있는 단이 있는 곳.  
단이 판에서 땅으로 변한 것이다.

\* 밭뒤구석 - 밭만 있는 뒤구석  
을 말한다. 구석을 이 지방에서는  
구직이라고 한다.

\* 안산초나무골 - 산수유 나무  
가 많은 골짜기로 안쪽을 말한다.

\* 섯갓치거래 - 섯갓의 아래 기  
슥을 말한다. 아래를 “치거래” “치  
지락”이라고도 한다.

\* 벌미땅 - 묘가 넓고 평평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 묘가 있는 곳  
을 “미땅”이라고 한다.

\* 산추나무골 - 산수유 나무가  
많이 있는 산. 산수유 나무가 산초  
나무로 불리게 된 것이다.

\* 논 골짜 - 논이 있는 산골짜  
기.

\* 작은웁실 - 웁실이란 기와 또  
는 토기를 굽던 곳을 말하는데, 그  
곳에서 작은 골 ‘외’는 ‘기와’, 토기  
굽던 곳을 말하고 ‘실’은 ‘골짜기’  
를 말한다.

\* 큰 웁실 - 큰 웁실을 말한다.

\* 바깥 산초나무골 - 산초나무  
골 중에서 바깥쪽의 골짜기.

\* 너마지기보 - 너마지기에 물  
을 대는 보. 한 마지기는 보통  
200평이지만 그보다 더 많기도 하  
고 작기도 한데 옛날에는 벼 곡수  
(수량)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150  
평이 1마지기 되는 곳도 있고 300  
평이 1마지기 되는 곳도 있다. 그  
러므로 너마지기는 800평 된다지  
만 그보다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한  
데 곡수로 8섬(16가마니)정도 수  
량의 벼가 나오는 논이다.

\* 새갓 비알 - 동쪽에 있는 산  
의 비탈을 이 지방에서는 ‘비알’이  
라 부름.

\* 마도랑 -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도랑을 말한다.

\* 예수바우 골짜기 - 여우가 살

던 바위가 있는 골짜기. 여우를 이 지방에서는 ‘예수’라 한다.

\* 배탈 - 백태가리 나는 눈이 있는 곳. 눈이 흰빛이 날 정도로 잘 마른다. 하얗게 마르고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백태가리라고 한다.

\* 예수바우 - 옛날 여우가 살았다는 굴이 있는 바위. 여우를 이 지방에서는 예수라고 한다.

\* 질매재 - 소 등에 얹는 길마 같이 생긴 고개. 소 길마를 이 지방에서는 소질매라 한다.

\* 안질매재 - 소 등위에 얹는 길마 같이 생긴 고개로 안쪽에 있는 고개. 길마율이 이 지방에서는 질매라 한다.

\* 바깥질매재 - 질매재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고개.

\* 태산 - 옛날에 태를 묻은 산이라 한다.

\* 태산밑 - 태산의 아래들을 말한다.

\* 태산비알 - 태산의 산 비탈.

\* 워실 - 옛날 신라 시대 토기를 굽던 곳이라 한다.

\* 철바우 - 철(쇠)이 박혀있는 바위.

\* 닝징징앞들 - 찬물이 새는 우물이 있는 골짜기의 집 앞에 있는 들로서 한자로 표기할 때 냉정하는 것이 닝징으로 부른 것이다.

\* 인대구리골짜기 - 죽은 사람 머리가 많이 텅굴던 골짜기. 죽은 사람 머리를 보고 인대구라고 한다. 또는 죽은 사람 머리같이 생긴 골짜기.

\* 불선곳 - 옛날에 불을 켜고 빌던 곳. ‘불을 켜는’ 것을 보고 ‘선다’고 한다.

\* 뒷갓 - 마을의 뒷산.

\* 오분등 - 산등이 다섯이나 되는 것을 말한다.

\* 비선등 - 묘에 비가 서 있는 등.

\* 난재만디 - 매우 넘기가 어려운 고개의 마루, 산마루를 산만디라고 한다.

\* 바람내기 - 바람이 많이 휘몰아치는 곳. ‘휘몰아치는’ 것을 ‘내친다’고 한다.

\* 고종연 팔발골짜기 - 옛날 어느 선비가 이곳에서 팔발을 일구면서 편안하게 죽었다는 골짜기. 고종연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하는데 오복 중의 하나이다.

\* 뒷골짜 -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 큰갓 - 옛날 큰집의 산을 말한다.

\* 냉정 - 찬물이 새는 우물이 있는 곳. 옛날 큰집이란 여러대가 장손으로 내려온 것을 말한다.

\* 섣갓 - 울섣을 한 듯이 우거지게한 산.

\* 새미골짜기 - 샘이 있는 산골짜기.

\* 논 골짜기 - 산 속에 논이 있는 골짜기.

\* 기린재골짜기 - 기린 목같이 생긴 고개 아래 있는 골짜기.

\*. 고장등 - 옛날에 고분이 있는 산등인데 옛 토기가 많이 있는 등이다. 오래된 무덤을 보고 고래장이라 하는데서 고래장이 고장등으로 부른 것이다.

\* 땡강등 - 땡그렇게 높이 솟은 산등.

\* 새갓골짜기 - 동쪽으로 향한 산의 골짜기.

## 어렁이

이곳에는 신라시대 왕실에 보급하는 어리어리한 토기를 만든 곳이라 어리어리하게 빛난다는 것이 어련이가 되었는데 어련이가 되다 보니 고기 어(魚)자와 못 연(淵)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어리어리하게 빛나는 장수들이 많이 활동하다 죽은 장수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죽어 이곳에 묻혔다. 이들을 모신 곳이 이 마을 어디선가 있었다고 전한다. 어떻게든지 빛나게 광나는 것이 있었다는 뜻인데 이것이 오늘날 어련이 되었다. 고기 같은 산이 있고 고기가 있으면 못이 있어야 한다고 마을 뒤에 못을 막은 것이다. 옛날에는 마을에 연못이 있어 큰 고기가 많이 있었으므로 어련이라



하였다. 또는 산 생긴 모양이 고기와 같다 해서 어렁이라고도 했다. 고기가 있으면 물이 있어야 산다고 해서 요즈음은 어연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고기같이 생긴 산이 있는데 고기가 있으면 물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고기 어(魚)자와 못 연(淵)자를 따서 어연이라 한다. 요즈음은 부르기 쉽게 어렁, 어렁이로 부르고 있다. 어쨌든 마을 이름과 같이 뜻을 맞추기 위해 마을 뒤에 연못을 막아 고기가 살게끔 한 것이다. 이 마을은 월성김 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 # 동제

나무: 본래는 느티나무였으나 죽어 없어져서 은행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았다.

제일: 정월 대보름날

제관: 한 집을 선택해서 지낸다.

제물: 마을에서 돈을 거두어 장만한다.

## # 토방이 땅이름

\* 연당 - 집 앞에 파놓은 작은 못을 말하는데 이 마을은 바로 뒤에 있는데 어연의 마을 유래에 따라 연당을 막고 고기를 기른 듯하다.

\* 새논 - 새로이 만든 논들을 말한다.

\* 동녘에 - 마을의 동쪽 편에 있는 논들.

\*. 따박골 - 산딸기 나무가 많은 곳. ‘딸기밭’이 따박골로 바뀐 것이다.

\* 안골 - 골짜기 안에 있는 골.

\* 절골 - 절이 있었던 골짜기. 절은 빈대로 망했다고 한다.

\* 연당비알 - 작은 연못이 있는 비탈. ‘비탈’을 이곳에서 ‘비알’이라고 한다.

\* 못골짜기 - 못이 있는 골짜기.

\* 샛등 - 골과 골 사이에 있는 등으로 이 마을 동쪽 편에 있는 산등이다.

\* 매바우 - 매가 많이 날라오던

바위.

\* 서나무골 - 서나무가 있는 골짜기.

\* 오밭 골짜기 - 옷나무가 많이 있는 골짜기. 옷밭이 오밭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 두리봉 - 두리번한 산봉우리.

\* 새등산 - 산의 셋등인데 이 마을 동쪽에 있는 산등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 어렁지 - 어렁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못 이름.

\* 대장산 - 큰 장군이 살던 산이라고 한다.

\* 응암 - 매가 많이 날라와 앉은 바위인데 한문으로 써서 응암이라 부른다. 매를 놓아 먹이던 곳이라고 한다.

\* 자라등 - 거북등 같이 생긴 산등성이

\* 말허리산 - 말 허리 같이 잘록한 산등성이.

\* 골에 - 언제나 물이 고여 있는 논.

\* 방매 - 옛날 매를 놓아 먹이

던 산.

\* 안골새 - 마을의 안쪽에 있는 골짜기.

\* 범발재 - 옛날 범이 많이 나타난 골짜기.

\* 새뚝에 - 억새풀이 많은 뚝. ‘억새’를 이곳에서는 ‘새’라고 한다.

\* 서나무 밑 - 곡산 한 씨 묘 앞에 큰 서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그 아래.

\* 뒷골새 - 이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 안산 - 마을의 안쪽에 있는 산.

\* 평풍바위 -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 ‘병풍’을 이 지방에서는 ‘평풍’이라 한다.

\* 음달논 - 음달 쪽에 있는 논.

\* 우무골 - 우물이 있는 골짜기.

\* 다복산 - 복을 많이 주는 산.

## 문바위

문 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 산이다. 옛날에는 이곳에 나무 하려 많

이 다녔다. 또한 이곳에 무늬 있는 바위가 있어서 문바위라고 한다는 말도 있다. 이곳은 고원지대로서 옛날에 절이 있었다는 절터와 화전을 일구던 팔발굴이 있다. 30년 전에는 몇 집이 살았는데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

### # 토박이 땅 이름

\* 문바우 안산 - 문바우 앞에 안긴 산.

\* 빛난 할매이 골짜기 - 빛난 할머니의 묘가 있는 산 골짜기. 옛날 무당이 있었는데 늘 빛난 옷을 입고 집을 처준 곳이라고 한다.

\* 물 골짜기 - 물이 많이 새는 골짜기.

\* 인대구리 골짜기 - 인대구리 같이 많이 벗겨진 산. 또는 인대구리가 발견된 곳이라고 하는데 인대구리는 죽은 사람을 말한다.

\* 큰웁실골짜기 - 웁실 마을 쪽의 큰 골짜기.

\* 못골짜기 - 못이 있는 산골짜기.

기.

\* 뜨런쑥 - 옛날에 솥을 굽던 곳이라 한다. 솥 굽는 것은 나무를 띄운다는 뜻이다.

\* 소바탕 - 소가 많이 뱉어서 단단한 곳.

\* 문바우 뒷산 - 문바위의 뒤쪽에 있는 산.

\* 문바위 앞산 - 문바위 앞쪽에 있는 산.

\* 갯등 - 갯 같이 생긴 산.

\* 흙바우 - 흙이 폭 파인 바위.

\* 너럭 바우 - 넓다랗게 늘어진 바위. 지금은 문암지 매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 청석이 들백이 - 푸른 돌이 깔린 곳.

\* 개골짜기 - 골짜기 폭 파인 곳.

\* 느리태 - 늘어진 바위가 있는 곳.

\* 오분등 - 산등이 5개로 이루어진 등.

\* 고장등 - 옛날 고분이 있는데 그곳에 토기조각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토기’를 이 지방에서는

‘고기’라고 한다.

\* 뱅강등 - 땡거랑 하계 솟은 산등.

\* 불선 골짜기 - 불을 켜고 빌던 골짜기.

\* 모리미기 - 산짐승을 몰아 사냥하던 곳.

\* 문바우 - 문 같이 생긴 바위.

\* 비선등 어심이 - 비가 서 있는 엇비슷한 산길.

\* 솔전골 음달 함우물 - 솔전골 음달에 있는 함우물.

\* 소매골 - 나무꾼들이 소를 몰고 나무하러 가서 많이 메어 두던 곳이라고 한다.

\* 배나무골 - 배나무가 있었던 골짜기.

\* 마당재 - 마당 같이 넓고 편편한 고개.

\* 바람내기 - 바람이 많이 휘몰아치는 곳. 이 지방에서는 바람이 많이 휘몰아치는 것을 내친다고 한다.

\* 난재 - 넘기기가 너무 어려운 고개. 도꼬불에서 문바위 가는 고

개이다.

\* 작은 난재 - 난재 중 작은 고개.

\* 큰 난재 - 난재 중에서 큰 고개.

\* 탕간바우 - 탕건 같이 생긴 바위. 머리에 쓰는 ‘탕건’을 이 지방에서는 ‘탕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조리봉 - 조리 같이 생긴 산 봉우리. 문바위에서 제일 높은 산 봉우리.

\* 남철방 - 남씨성을 가진 사람이 찰방 벼슬을 하고 죽은 사람의 묘가 있는 곳. 찰방을 철방으로 잘못 부른 것이다.

\* 띠알만디 - 나무를 띄우면서 솥을 굽던 곳이라 한다. 솥을 구울 때는 나무를 띄우기 때문이다.

\* 띠말 민디기골짜 - 나무를 띄우면서 솥을 굽던 골짜기.

\* 비선당- 남 씨 중에서 찰방 벼슬을 한 사람의 묘에 비가 서 있는데 그 근처를 비선당이라고 한다. 찰방이란 조선시대 각도마다

역말에 관계되는 일을 맡아 보던  
외직의 문간 벼슬로서 종육품 벼  
슬이다.

\* 함우물 - 함같이 생긴 우물.  
바위 위에 있다.

\* 솔전골 - 봄이면 소쩍새가 많  
이 와서 소쩍소쩍 우는 골짜기인  
데 “소쩍골”이 “솔전골”로 변한  
것이다.

\* 솔전골 음달 - 봄이면 소쩍새  
가 많이 와서 소쩍소쩍 하고 우는  
데서 소쩍골이 부르기 쉽게 발음  
변화에 따라 솔전골이라 했다. 솔  
전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음달 쪽  
이다.

\* 범우굴 - 범의 굴이 있었던  
곳.

\* 장지태 - 넓은 터인데 이곳에  
장자(큰 부자)가 살았다 한다. 장  
자가 장지로 변했다.

\* 도장골 - 쥐같이 생긴 골짜기  
로 창고에는 쥐가 많기 때문이라  
함.

\* 질매재 - 소질매 같이 생긴  
고개.

\* 팔발굴 - 땅을 파서 일구었던  
밭 골짜기.

\* 추엽밭 - 가을이면 낙엽이 많  
이 떨어져 밭을 일구던 곳.

\* 말등 - 말등 같이 생긴 산등  
성.

\* 살수나무굴 - 좁은 골짜기에  
맑은 물이 세차게 흐르는 골짜기.  
물이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고 살  
세게 흐른다고 한다.

\* 분등 - 옛날 풋거름을 하기  
위해 풀을 베던 산등.

\* 문암지 - 문바위에 막은 못인  
데 한자로 표기할 때 문암지(問岩  
地)라고 한다.

\* 바람내기 함우물 - 바람내기  
에 함 같이 생긴 네모진 우물.

\* 문바우 못 - 문바우 입구에  
막은 못.

## 한국 토종 이야기

홍석화 《토종문화와 모듬살이》에서 옮김.

### 한복

문화체육부는 최근 한국 문화의 CI(Cooperative Identity) 상징물로 한복, 한글, 김치와 불고기, 석굴암과 불국사, 태권도 5가지 골랐다.

문화체육부는 96년 3월, 21세기 국가 상징 일원화 방안의 하나로 우리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상물 고르는 작업에 들어가 8개월간 국내외 관계자와 주한 외교사절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거쳐 이를 확정할 것이다.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한복이다.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생활과 하나뿐인 색감을 갖고 담고 화려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96년 12월 4일 한복 입는 날을 선포하여 금년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엔 온 나라 사람들이 한복 입는 것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한복 입기 잔치가 되고 있고, 때를 놓칠세라 백화점 업체가 발 빠르게 판매 경쟁에 나서기 시작, 한복 구매 고객에게는 선물을 증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을 지켜보면서, 바깥으로 늘상 ‘개량 한복’을 입어온 글쓴이에게는 여러 상념들이 간단없이 떠오른다. 무엇보다 먼저 저미어오는 아픈 마음은 호칭, 다시 말해 이름 짓기의 문제다.

**한복은 그냥 그대로 ‘우리 옷’**

옷-한복, 집-한옥, 먹거리-전통

식품, 음악-국악, 미술-한국화, 무용-한국무용, 연극-민족극, 종교-민속종교, 이를테면 한복, 한옥, 한지(종이)처럼 접두사로 ‘한’을 붙인 것, 미술이나 무용처럼 ‘한국’이라 붙인 것. 국악, 전통 식품처럼 ‘국(國)’이나 ‘전통’이라 붙인 것, 연극이나 종교처럼 ‘민족’이라 붙인 것 등 우리 고유문화의 이름들이 제각각인 것이다.

이렇게 이름 자체가 각양각색으로 여러 분야마다 다르게 불리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토종문화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지극히 혼란스러운 아노미현상(도덕이 없는 어지러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곧바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알짜, 핵심, 중심은 잃어버리고 쓰레기, 결달린 것에 열이 빠져 허둥지둥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한복만 해도 그렇다. 그냥 우리 옷이면 되었지 왜 ‘한’자를 굳이 붙여야 하며, ‘복(服)’은 또 무엇인

가 말이다.

정부가 한복 입는 날을 선포한 것도 한편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아예 토요일로 정했더라면 더욱 좋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1년 365일 중 12일이나, 50일인가를 놓고 따지자니 이렇게 정부까지도 나서야 될 지경에 이른 우리 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자체가 한심스럽고 울화통이 터진다. 이 지경까지 된 우리들 삶의 궤적을 되짚어 본다는 것도 맥 빠지는 노릇이다.

아무튼 개항 이래 서세동점(西勢東占)의 큰 물줄기와 미국, 일본이 나서서 하는 양풍(洋風)과 합리주의, 자기 밖에 모르는 물질 만능주의의 용단폭격을 받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적을 하나하나 나누어 무찔러 왔다.

한복의 경우도 벗어나지 않고, 스님들의 승복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고집스레 우리

것을 지켜온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의례복을 중심으로 품위 높은 ‘주단 한복’만이 그 명맥을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몇몇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도 오늘 의 생활과 함께 하자는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개량 한복을 만들고,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서구의 모양이 ‘동양 모양’ 바람을 타면서, 국내의 내노라 하는 디자이너들이 우리 한복의 아름다운 감각에 새삼 눈길을 모아 ‘모양 + 우리 옷선’을 세계에 선보이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

70년대 초반부터 토종문화를 오늘날의 우리들 삶에 함께 하자는 작업에 매달려오다시피 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여겨왔던 것이 하나 있다. TV나 사진 같은 시각 매체에서 누구나 쉽게 접하는 사실이지만, 인도나 아랍 사람들은 온 나라 사람들이 그들 고유의 옷을 입고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나라 안

에서만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UN이나 국제회의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고유 의상을 전혀 거리낌 없이 입고 다닌다.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리고 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어떠했는가? 그야말로 양복, 양장만 입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도 이번 문화체육부의 결정은 좀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잘 한 일이고, 점점 더 그 계도와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옷 자체에 대한 의식이랄까, 생활 현상에 대한 진단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의례복’이 아닌 ‘생활복’의 경우엔 옷을 너무도 하찮게 그저 쉽게 쓰고 버리는 ‘1회용 기저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는 사람의 기본 생활을 놓고 볼 때 역시 입는 것은 먹고, 사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과 생활물자가 넘쳐흐르다 못해 오히려 그것이 버려지는 데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 우리 몸에 가장 편안한 옷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두고 한국의 상징으로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다는 한복의 아름다움과 좋은 점을 살펴보기로 하다.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야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왔다. 어떤 사람은 한복 옷 선의 하염없음(이는 건축에서의 ‘현수곡선’과 같은 대자연의 곡선이기도 하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몸뚱이를 드러내 보이는 옷이 아닌 ‘감싸 안는 포용의 미학’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조화의 극치란 말로 칭송하기도 한다.

하지만 글쓴이가 즐겨 입으며 터득한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역시 우리 한복은 우리 몸을 가장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한다. 옷 자체가 관절 부분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며, 워낙 평퍼짐해서 공기의 소통이 잘 되고 겨울철에는 보온효과까지 뛰어나다. 옷의 치수로 보더라도 등급을 여럿으로 나눌 필요 없이 그저 크고, 작은 정도로만 해놓아도 웬만한 사람들이 입는데 지장이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이 옷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에게 맞추어진다는 여유, 이는 바로 모든 토종문화 정신의 알기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웬만하면 두루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먹을거리와 이어보면 된장이나 김치를 떠올릴 수 있다. 이를 좀 더 크게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

‘웬만큼 사람이 되었으면 두루두루 사귀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니, 우리 조상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어렴풋이 헤아려지는 듯도 하다. 가장 고귀한 것은 평범한 것에 있고, 그것은 웬만하면 두루 통하는 아우러짐 속

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온 우리 옷 한복이 다시 평상복, 곧 ‘생활 한복’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한복 입는 날은 365일이 아닌 12일이다. 한복을 입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다른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다. 외출복, 노동복, 학생복, 유치원복으로 조금씩이라도 한복의 수요층이 넓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한복 입기를 이상한 눈초리로 신기해 할 것이 아니라 좋은 호감을 갖고 서로 격려해 주었으면 한다.

여담이지만 (한)의사들의 가운도 본래 우리가 백의민족이었으니 한복 입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 전통한복에 대한 고증, 연구, 복원

우리의 전통 복식에 관한 학술 연구는 꽤 활발히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학술 기초에 더하여 지금도 파문혀 지내고 있는 한복 장인들의 실천 경험을 배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리라 본다. 이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만들어 왔던 그 경험에서 쌓인 아름다운 감각과 지혜들, 이것이 바로 토종문화의 알짜배기라 하여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개량 한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연배가 50대 넘는 거의 없는 현실이 이런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는 토종문화의 모든 분야에, 온몸으로 겪어본 노인들과 합쳐지지 않은 재창조 작업은 오래 낮추어 보거나, 조급함이 쉽게 드러나 원래의 목표를 그르치기 쉽기 때문이다.

제작 과정에서는 보통 ‘옷-여성-미감-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예쁘게 만드느냐’에 힘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옷감의 문제, 염색의 문제, 바느질의 문제 같은 기술에서 전통 한복의 원리를 간과해내고, 이를

어떻게 생활 한복에 합쳐서, 재창조시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화두이다.

이를 의례복이 아닌 생활복에 적용시킨다는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꿰뚫어 볼 때, 우리는 지금 생활복 자체가 의례복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에 두어야 한다. 또 한복이나 맞춤 한복보다 생활 한복의 바느질 수준이 확연히 떨어지고 정성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 속옷은 평퍼짐한 고쟁이이다. 서양 문화의 융단 폭격으로 우리는 몸에 딱 끼는 팬티, 런닝, 브래지어에 어쩔 수 없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으로도 확신을 갖지만, 속옷도 원래는 우리 몸을 딱 조이는 게 절대로 이롭지가 않다.

피돌기에 나뻐 뿐 아니라, 공기의 소통에도 불리하다. 일반인들의 먹고 입는 문제, 대량생산 물량의 가격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

가 하는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겉옷보다도 속옷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글쓴이의 견해이다.

### 여러 가지 공간을 넓힌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옷은 한번 입고 버리는 1회용 소모품일 수만은 없다. 갖가지 아름다움과 멋이 어우러져 있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가 하면 건강을 이어주며, 사람살이의 좋고 나쁜 일을 함께 하는 생활의 필수품이다. 또한 옷은 먹을거리나 집과는 달리 단순히 ‘치장’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책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옷을 만드는 공장, 매장, 식당(한옥이나 흙집), 쉼터(숙박, 행사)를 아우르는 토종 생활 문화 공간을 하나 짊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집’ 같은 것이 되겠는데, 그렇게 정물화된 형태로는 아니고 누구나 쉽게 와서 즐기고, 쉬고, 아이들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큰 물줄기에서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것 없이 ‘우리 것을 잃어버리라’는 강요를 받으며 아주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통 한복을 본래의 재료와, 제작방법으로 만들어 입는다는 자체가 사치가 되어버리고, 그런 옷은 박물관이나 장인에게 가거나 구경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개량 한복이든 생활한복이든, 한복 입는 날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빨리 오도록 만드는 일, 그 일로 골머리를 앓으며 살도록 운명으로 지워진 ‘토종문화의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더욱 힘을 합쳐야겠다.

## 한지

토종을 찾아 원고 한 쪽지 써 내려가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원인은 역시 자신의 속마음이 몹시 지쳐 있음을 알게 된다.

생태학 토종이든, 문화 토종이든, 인간학 토종이든 무엇이든 토종을 찾아 방방곡곡, 바위 틈틈이, 나뭇잎 사이사이를 헤매고 다니는 이 ‘일 아닌 일’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이 그 어떤 토종이든 한 가지라도 올곧게 가꾸고, 기르고, 키워가는 일에 온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서 이런 저런 사정들과는 상관없이 도도히 흘러가는 이 세월과 사람살이, 다시 말해 문명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아무튼 차 한 잔 앞에 두고 씩어가는 나뭇잎, 빛과 소금, 한 알의 밀알을 떠올리며, 독한 마음으로 ‘한지 타령’을 시작해 본다.

## 영상매체 시대의 종이문화

‘종이’ 하면 글쓴이에게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조금 뒤편 애기지만 변소의 휴지이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 측간을 가면 으레 휴지는 신문지이거나 잡지나 부랭이 그런 거였다. 그걸 큰일(?)이 보는 사이에 두 손으로 이리 꾸깃, 저리 꾸깃 여러 번 뭉쳐가지고 보드랍게 짓이겨서 밑을 닦곤 하였던 기억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지냈을 법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산골, 어느 오지란 데를 가 봐도 ‘휴지’는 누구나 으레 쓰게 마련인 당연한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그러니 책을 비롯하여 신문, 잡지, 지폐, 교과서, 편지, 서류, 우표, 달력 그밖에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쉽게 널브러져 있는 종이더미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종이의 고마움이라든가, 우리 조상의 한지는 왜 그리 손쉽게 보고 쓰지 못하는 것인지 따위에 신경 쓸 겨를조차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종이는 문화의 모체’이며 ‘일국의 문화 척도는 그 나라의 종이가 좌우한다’는 이야기는 다 물 건너간 얘기란 말인가.

여러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가 있기 마련이다. 지금의 이 세기는 바야흐로 영상, 전자 매체의 시대이다. 따라서 표현과 전달, 기록은 온통 영상, 전자 매체들로 흘러넘치고 있다. 그러면 종이로 나타내는 인쇄문화는 멀지 않아 없어질 운명이라는 말인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종이는 종이의 시원은 보통 식물섬유를 이용한(원료는 마[麻]) 최초의 종이인 중국의 채후지(蔡侯紙)를 꼽는다. 우리나라 종이에 관한 기록은 353년 왕희지의 [난정서]가 우리 종이인 ‘잠견지’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최초이고, 610년 고구려 담징이 일본에 종이 제작 기술을 전해주었다는 기록이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전인 285년 백제의 왕인 박사가 일본에 [논어]를 전달했다는 기록도 있고,

낙랑시대의 고분 채협총(B.C 108 ~ A.D 313) 속에서 명주옷과 함께 종이 문치가 발견된 바도 있다.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포함해서, 적어도 우리 한지는 1천년의 세월을 능히 견뎌냈다.

또한 중국, 일본 같은 동양 문화에서도 우리 한지는 그 독특한 원료와 쓰임새로 가히 대단했다고 할 수 있다.

토종과 신토불이를 들먹일 것도 없이, 이 땅이 모든 초목과 벌레, 짐승들이 극동에서도 유독 뛰어난 좋은 형질을 많이 지니고 있음은 동서양 학자, 전문가들이 익히 동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의 질도 물론 좋다. 쓰임새로 말하더라도 중국, 일본에선 주로 서화, 인쇄용에만 쓰여 왔는데 우리 한지는 창호지, 장판지의 건축 마감재, 부채, 지가구, 사주, 소지용, 장독용 갖가지 생활 소품들에다가, 심지어는 못쓰게 된 한지

를 재활용해 노끈을 만들거나(지승공예), 겨울 솜옷에 솜 대신 넣던 ‘갑의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물건을 뽐질할 때 사용하기도 했다. 또 아주 작은 보기일는지 몰라도 짚신(종이끈 신발)으로까지 쓸 정도였다(구한말에 무척 유행하여 고서들이 수난을 당하였다 함).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주원료인 우리의 닥 자체가 질기고 견고해서 종이 지(紙)라는 글자의 실 사(絲)에서 알 수 있듯이 훌륭한 섬유, 대용품 노릇을 톡톡히 해왔음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말하겠지만, 제조과정에서의 티 없는 자연 수공 제작은, 그 쓰임새가 용기와 마찬가지로

## 이런 책은 읽지 마

##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에서) 배운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녹색평론 출판사, 김종철/ 김태언 옮김

### 16장 - 개발 속임수

로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인’ 한지이기에 질기고 가볍다. 찢기지 않고, 통풍과 채광이 가능하며, 거를 짓은 걸러내고, 습기와 기름도 빨아내며, 포근한 품격이 느껴진다. 섬유 사이의 일정한 공간은 보온력까지도 가능케 한다. 자연물감에 쉽게 염색되는 가염성 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여도 과히 지나치다 싶지 않을 정도라 하겠다.

내가 처음 라다크에 다다랐을(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욕심 없는 것이 가장 깊게 와 닿았다(인상적이었다). 개발담당관이 꼭 짚어 이야기한(지적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저 돈의(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쉬는 날(여가)이나 즐거움을 덜할(희생시킬) 생각이 없었다. 개방되기 앞서는(초

기) 아무리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관광객들은 어리둥절(당황)했다. 여러 해의 개발이 있는 다음 지금은 돈을 버는 일이 가장(제일) 큰 눈길을 받게(관심사로) 되었다. 새로운 바람이(유행) 생겨난 것이다.

개발에 앞장선 사람들(전도사들) - 놀러온 사람들(관광객), 광고 말고도 (빛) 영화에서 보이는 장면들(이미지들) - 모르는 사이(암암리에) 라다크 사람들에게 그들의 옛날(전통적인) 방법은 뒤떨어진 것이고, 현대과학이 자연자원을 잡아 늘여서 훨씬 더 많이 만들도록(생산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해왔다. 개발은 불만과 탐욕을 부추기고(자극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함으로써) 개발은 천년 넘게(이상) 사람들의 필요를 넉넉히 해온(충족시켜온) 경제를 부수고(파괴하고) 있다. 옛날(전통적으로) 라다크 사람들은 가까운 둘째의(주의) 자원을 놀라울 만큼 잘(교묘하게) 숨쉴(숨쉴) 좋게 써왔고(사용했고) 되도록 (비교적) 따뜻하게(안락하게) 그리고 부

러울 만큼 안정되게 사는 방법을 생 각해(교안) 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에 넉넉(만족)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넉넉 하지(충분하지) 않다.

라다크의 개발이 처음 시작된 지 16년쯤 되어서 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자) 사이의 거리가(간격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자들이 자신감과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고, 일자리에서 쫓겨나고(실업과) 물가가 오르고(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또 범죄가 갑자기(극적으로) 늘어나는(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돈 때문에 마음을 내리누르는 여러 느낌으로(다양한 심리적, 경제적 압력에 의해) 사람이(인구가) 늘어나는(증가하는) 것을 보았고, 가족과 모둠살이(공동체)가 무너지는(와해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혼자서도 잘 살아가던 것(자급자족) 대신에 바깥일에(외부세계에) 대한 돈을 기대는 것이(경제적 의존이) 깊어짐에(심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땅에서(으로부터) 따돌려지는(유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청동항아리가 분홍색 플라스틱

바가지(바게스)로 바뀌고(대체되고), 야크털 신발이 버려지고 값싼 현대(적) 신발이 환영받는 것을 보았을 때 나에게(나의) 먼저(최초) 떠오른 느낌(반응)은 끔찍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 나는 내(나의) 아름다움을 살피 찾으려는(심미적) 태도를 알릴(강요할) 권리도 없고, 그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권리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대세계가 들어오는 것(침입)이 보기 싫고(옹하고) 나쁘게(부적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돈을 끌어오는(물질적인) 이익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나는 이 하나하나의 보기(예)들을 꿰어 맞추어 그것들을 한 가지로 묶은 일(단일한 과정), 다시 말해(즉) 라다크 문화의 살살이 짜여 있는(체계적인 분해의) 여러 모습(양상)들을 보게 되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늘어나는(증가하는) 작은(사소한) 변화들, 새로운 신발, 새로운 콘크리트 건물을 돈의 기쁨(경제적 의존), 문화부정, 환경파괴라는 좀 더 큰 모습(현상의) 한 부분(일부)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짜임새가(연관성이) 나에게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나는 세상에 서 말하는 대로(소위) ‘개발’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회의적) 되었다. 기술(적) 진보와 경제성장을 하여(통하여) 생활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이 계획된 변화과정은 얻는 것(득)보다 잃는 것(실)이 더 많은(초래한다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지나치게 탐하는 것(탐욕의 창조가)이 훨씬 더 큰 변화들의 밑바탕(본질적인 부분)임을 깨달았다. 세계의 다른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라다크의 개발은 크고(거대하고) 짜여진(체계적인) 사회 재편은 바라고(요구하고), 거기에는 포장도로 건설, 서구식 병원, 학교, 라디오 방송국, 비행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발전소(등) 하부구조(에)의 아주 크고 많고(방대하고) 꾸준한(계속적인) 투자가 내세워져있다(전제되었다). 이 모든 것에는 엄청난 액수의 돈 뿐만 아니라 큰(막대한) 노동력과 행정력이 들어가야(투입되어야) 한다. 어떤 단계에서도 이 굉장한 노력의 결과가 옛날(과거의) 것에 비해 진정한 발전이

될지 어떨지 묻지(몰어지지) 않았다. 마치 개발하기 앞서는(이전에는) 라다크에 하부구조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같았다. 마치 옛날(과거)에는 의료도, 교육도, 통신도, 교통수단도, 교역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거미줄 같이 짜여진 도로와 오솔길과 교역로들, 몇(수) 세기 동안 지켜온(유지되어온) 크고(거대하고) 정교한 관개수로의 그물, 이 모든 살아있는 바르게 돌아가던(정상적인) 문화와 경제체제의 표지들은 아예(전혀) 있지(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뤄졌다(취급되었다). 라다크는 서구의 사진처럼(대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와 철로로 다시 지어지고(재건되고) 있다.

지금(현재)까지 사실(상) 고스란히(온전하게) 이어온(존속해온) 마지막 자급 경제사회의 하나로서 라다크는 개발의 온(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남다른(독특한) 높은 땅(고지)이다. 라다크의 현대세계와(의) 부딪침(충돌)은 어느 곳보다(특히)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극적)이었다. 그러

나 라다크가 지금 겪고(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결코 남다른(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바탕이(본질적으로) 똑같은 과정이 세계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라다크의 변화를 다른 곳에서 일어난 비슷한(유사한) 변화 흐름(패턴)과 관련시킬 때, 얼마쯤(간)의 일반화는 피할 수 없을(불가피할) 것이다. 나는 그 점에 있어서 변명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화과정 그 자체가 엄청난 일반화이기 때문이다. 현대화란 지역(적인)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한 가지로 묶은(단일) 문화와 경제체제로 바꾸는(대체하는) 과정인 것이다.

개발은 현금도입에 벗어나지 않는(예외 없이) 발전이라고 내세운다(전제한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그러나 본줄기(주류) 경제에 기대고(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자급경제, 다시 말해(즉) 지역 자원과(의) 바로 이어진(직접적인) 관계에 틀(기초)을 둔 돈 없는(비화폐) 경제 안에서 살고 있거

나 거기서 좋은 점(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자신의 먹을 것(식량), 옷(의복), 집(주거)을 스스로 지을(마련)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안정하지 못하는(불안정한) 현금수입을 위해 자신의 문화와 독립성을 버린다는 것은 삶의 질이 깊게(심각한) 낮아지는 것(저하)을 뜻(의미)한다.

라다크의 일(상황)과 가깝게(인접한) 히말라야의 부탄왕국의 일(상황)은 사람의 행복한 삶(인간의 복지)을 돈만 보고(관점에서만) 밝히는(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생생하게 보인다(예시한다). 두 경우 모두 생활수준은 거의(대부분의) 제 3세계에 견주어(비해서) 실제로 아주(매우) 높다. 사람들은 자기네의 기본 욕구를 스스로 채우고(충족시키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미술과 음악을 즐기며, 가족, 친구와 놀러 다니기(여가활동) 위한 시간을 실제로 서구인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은행은 부탄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그려내고(묘사하고) 있다. 국민총생산이 사실상 영(제로)인 탓에 그

나라는 국제(적) 경제서열에서 밑바닥에 자리 잡고(위치하고) 있다. 결국 그것은 뉴욕 거리의 집 없는 사람들과 부탄이나 라다크의 농부 사이 아무런 다른 점(구별)이 없다는 뜻이다. 두 경우에 모두 소득은 없을지 모르지만, 통계자료 뒤에 있는 현실은 밤과 낮처럼 다르다.

멀리 떨어진 땅(오지)의 자급경제 속에서든 산업세계의 속(중심)에서든 GNP를 사회복지의 중요한(주) 지표로 보는 체계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 체계에서는 돈이 사람 손을 건너갈 때마다 토마토를 팔든 자동차 사든 그것은 GNP에 따지고(합산되고), 우리가 그만큼 더 잘 살게 되었다고(부유해졌다고) 계산된다. 따라서 흔히 환경이나 사회에 나쁜(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GNP 부양정책이 뒤따르는(추구되는) 것이다. 보기(예)를 들어, 숲(삼림)을 모조리 베어 넘기더라도 국가의 대차대조표는 더 나아져 보인다. 왜냐하면 베어진 나무가(벌목이) 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가 늘

어나고(증가하고), 사람들이 전축이나 비디오를 잃어버려서 새로 사거나, 아픈 사람(병자)이나 늙은이(노인)들을 값비싼 보호시설에 맡기거나, 마음을 다스리고(정서나) 정신피로(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거나, 물이 너무 더러워서(오염되어서) 먹을 물을(생수들) 사먹으면 이 모든 것이 GNP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경제성장으로 매겨진다(측정된다).

일은(상황은) 아주 터무니없게 나아간다. 자기의 뜰에서 키운 감자를 먹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다른 편에서 키워서 가루로 만들고 얼리고 말려서 만들어 보기에 좋은(화려한) 감자(포테이토) 과자를 사서 먹으면 경제를 위해 더 낫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소비는 물론 더 많은 운송, 더 많은 화석연료, 더 큰 오염, 더 많은 화학첨가물과 방부제,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더 큰 거리를 뜻(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GNP가 올라가는 것을(증가들) 뜻하고(의미하고), 그래서 부추겨진다(장려된다).

경제전문가들과 개발전문가들이

널리 좋아하는(선호하는) 이러한 하나만 생각하는(일차원적인) 진보관은 경제성장의 나쁜(부정적인) 영향들을 숨기는데(은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더욱이 그것은 지역에 기초를 둔 자급경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지구위의(상의) 거의 모든(대다수의) 사람들, 제3세계 농촌부문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져왔고(초래했고), 개발계획이 이 사람들에게 좋은 점(혜택)을 주기는커녕 많은 경우에 그들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데만 이바지(기여)해왔다는 사실을 숨겨(은폐해)왔다.

옛날(전)에는 자급을 위해 여러(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짐승을 몇 마리 키우던 농부들도 지금은 몸소 가거나(직접적으로나) 지역경제를 통해서 멀리 있는 시장을 위해 한 가지(단일) 돈벌이 곡식(환금작물)을 기르도록 부추겨지고(권고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큰(거대한) 수출체계, 기름 값, 국제금융 변동 같은 자신들이 붙잡을(통제할) 수 없는 힘들에 기대게(의존

적으로) 되었다. 시간이 지남(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오르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이때까지(종래) 그들이 스스로 기르던 것들을 사먹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넓히려면(확보하려면)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지(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적은(빈약한) 봉급이나 임금도 현금경제에서는 발전으로 생각되므로 돈벌이 곡식(환금작물)의 생산과 그에 따른 상업과 수출의 늘어남은(증가는) 생각에 벗어나는 것(예외) 없이 이익이 되어 보인다. 실제로 개발은 보통(일반적으로) 농촌인구를 피어내어(유혹하여) 땅을 떠나 도시의 빈민가로 옮겨가게 해서(함으로써) 가난함(빈곤)이 만들어내는 마지막을(결과물) 불러온다(초래한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원을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산업하지 않은(비산업화) 지역에서 산업화 지역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가난한 사람들에서(에게서) 부자들에게(로) 끌어모으는 경제체제 속에 갇히게 되었다. 흔히 이러한 자원들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포장 다듬어(가공되어), 가난

한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없는(구매능력을 넘는) 값으로(가격으로) 그 자원의 본래 태어난 곳(출처)으로 되돌아간다.

같은 과정이 일어나(작용으로) 개발비는 시장거래를 늘리려고(중대 목표로) 한다. 그런 큰(대규모) 계획사업으로 마구 흘러 들어간다. 국가나 사회에(공적인) 어떤 논의도 없이, 소리 없이, 수십억 달러가 도로와 댐, 비료공장 건설에 쏟아져 들어간다. 그것들은 모두(전부) 가운데 모으는(중앙집중화된) 체제와 연료 많이 쓰는데(에너지다소비에의) 기대려는(의존도를) 힘을 높일 때(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기여한다). 그러나 정말로 스스로 설 힘을(자립을) 높일 수 있는 마을 크기의(규모) 수력발전소나 태양열 오븐, 가정용 온수기와 같은 작은 크기의(소규모) 일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장에 “사람들이 돈을 낼(지불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제기된다). 원자로와 대규모 댐들은 많은 보조금을 받지만, 또 쓸 수 있는(재생가능한) 연료(에너지)에 분바탕(기초)을 둔 작은 크기(소규모) 기술들은 어떤 주요 원조기관에서(으

로부터)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 개발의 가장 큰 이야깃거리(스캔들) 가운데(중) 하나는 크나큰(막대한) 힘이 숨어져 있는데도(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개발도 상국도 작은 크기의(소규모) 중심에서 벗어난(탈중심화) 태양 연료(에너지) 시설을 좋은(실질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지(장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 곳곳(전역)에서 개발과정은 보통(일반적으로) 지역 자립경제, 무엇보다(특히) 소농민들을 흠트렸다(와해). 산업화된 세계에서 90퍼센트 넘는 사람들이(이상이) 농사짓다가 끌려나왔다. 지금 그와 똑같은 과정이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은 농촌의 자급구조가 꾸준히(계속적으로) 부서지면서(파괴됨에) 훨씬 더 빠르게 가고(진행되고) 있다.

농부들을 땅에서(으로부터) 밀어낸 바로 그 세력들이 그 자리에 갈수록 돈과 힘만 챙기는(자본집약적이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영농 방법을 (투입)하려 한다. 농사를 기업농으로 바꾸는(전환하는) 것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필

요하고, 늘어나는(증가하는) 세계 사람들(인구들) 먹이기 위해서 곡식이 많아져야(수확량의 증가가 필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농은 꾸준한(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화학비료와 농약은 물을 더럽히고(오염시키고), 땅을 무너뜨리며(토양을 파괴하며), 수확량도 처음에 늘고(증가하고) 나서는 다시 줄어드는 기율임이(경향이) 있다. 게다가 한 가지 곡식(단일작물) 재배로 농작물의 병충해에게 견디는 힘이(저항력이) 없어지고(약화되었고), 화학 살충제는 자연(적) 방충체제를 망가뜨려 놓았다. 살충제를 쓰도록 부추김(권고) 받은 라다크의 농부들은 놀랄(발목할) 만한 해충의 헤아릴 수 없는 수에(중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산업농은 이제 정해진(특정) 환경에 살고 있던(토착적인) 여러(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모두 쓰는(표준화된) 종을 쓰도록(사용)하고 있다. 여러 나라(다국적) 기업과 큰(대규모) 석유화학회사들은 특히 제3 세계에서 종자들을 빼앗아(약탈하여),

지역(적) 조건에 대한 수천 년 사이(간)의 적응을 나타내는 유전(적) 정보를 빼돌려(이용하여) 잡종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제3 세계의 농민들에게 되팔며, 곁들여 그러한 품종이 바라는(요구하는) 화학비료와 살충제도 같이 판다. 이런 교배종들은 흔히 다시 태어나는 힘(재생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농부들은 그 회사들로부터 씨앗과 화학물질들을 다시 사야 하는 반복된(순환적인) 기댐(의존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산업농의 논리가 나아감에(진전됨에) 따라 사태는 갈수록 좋지 않게(불길하게) 보인다. 생명공학 혁명, ‘바람직한’ 유전(적)으로 낫다른 성질을(특질을) 가진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옮겨 심는 기술과 더불어 우리는 큰 크기(대규모)의 과학(적)으로 꾸며 만든 것(조작)을 보고 있다. 기업의 필요에 맞도록 자연이 꾸며질(조작될) 때, 그 결과는 더 표준화와 똑같고( 획일화), 그에 따라 가볍게 여길 수 없게(중대되는) 무르고 약해진다(취약성).

여기서 두드러지는(강조되는) 것은 사람의 행복한 삶이(인간의 복지) 아니라 상업(적) 좋은 점만 따지는 것(이득)이다. 연구가 공공기금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도(수행되었음에 불구하고) 이 기술에 대한 통제권은 여러 나라(다국적) 기업들의 손아귀에 굳게 붙들려(강박되어) 있다. 여러 나라(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까지 멋대로 꾸며서(조작하여) 그것들을 특허 받은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힘(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농업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교배종들을 개발해왔다. 라다크의 ‘조’도 그 환경에 맞는(적합한) 교배종의 한 보기(예)다. 오늘날의 유전자공학에 있어서 색다른 점은 그것이 개발하는 교배종이 살아있는 지역, 생태계와 아무런 맺음(연관)이 없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생명의 유전(적) 기초가 오랜 시간 걸친(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분명한 개념도 없이 꾸며지고(조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 기술이 여러 가치를(다양성을)

부수고(파괴하고), 생물학(적) 이쪽과 저쪽에 있는(상호의존의) 그물을 깨뜨린다는(와해시킨다는) 사실이다.

생명공학에서 산물은 자연의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병충해에 강하고 가뭄에 잘 견디고 많이 거둘 수 있다는(고수확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특허 받은 옥수수가 몇 년 동안이나 더 크고 더 밝은 노란 빛으로 나올(생산될) 것인가? 그리고 지친 토양이 그것을 얼마 동안 받쳐(지탱해)줄 것인가? 과학과 기술에 대한 끝없는(무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관심사가 아니다. 몇 년 전에 큰 석유회사의 중역과 이야기하던 가운데(중)에 내가 땅 힘이 줄어드는데(토양침식)에 대한 걱정을(우려를) 이야기했더니 그는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교배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흙이 필요 없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음 호에 이어서)





## 알

## 림

## 니

## 다

※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바꿉시다.

### ※ 우리 모임 알림

1. 지난 3월 4일 서대문 ‘사랑의장기기능운동본부’에서 아버지(노명환 대표)와 아들이 장기를 기증한 일이 있는 우리 모임 노명환 공동대표께 우리 모임과 함석헌기념사업회, 사랑의장기기능운동본부 회원들이 함께 감사패를 드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는 축하모임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김경희, 김조년, 박문희, 이대로, 허흥구 님들이 참석했습니다.

2. ‘우리말 우리얼’ 지를 실을 글을 보내주세요. 잘못된 외래말을 깨끗한 우리말로 바로잡는 글, 우리얼을 살리는 글은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표지에 실려 있는 전자우편이나 학교 주소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우리 모임 운영위원으로 오래 활동하신 박용수(한글문화연구회 이사장)님께서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해 요양 중입니다. 일찍이 박 선생님이 만든 거례말 갈레사전을 문익한 목사가 북 김일성 주석을 만나 기증하면서 남북 통일 사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요즘 “우리말 쓰임새 사전”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빨리 건강하게 되어 힘차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5. 다음 운영위원회를 언제 하게 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늘 서울에서만 하니 참석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나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에 모임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 ※ 회계 보고 (4월호)

- 들어온 돈

2 / 20 이정호 2천원

3 / 20 이정호 2천원

3 / 20 이숙례 2만 2천원

3 / 22 이대로 10만원

- 쓴 돈

회보 100부 1통 발송비 630원씩 63,000원

회보 만드는 값은 1권마다 3,000원씩 300,000원

\* 2월호 들어온 돈은 126,000원이고

2월호 나간 돈은 363,000원입니다. \*

모두 363,000 - 126,000 = 237,000원 모자랍니다.

### ※ 회원이 내신 새 책

<배달말에서 군말 떼어내기>란 문영이 회원님의 부록 책이 지식산업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보에 꾸준히 실었던 A4지 300쪽 넘는 원고가 작은 책으로 간추려 엮어진 것입니다.

부록 책 머리말 : 여느 책을 읽으며 ‘별다른 말도 아닌데 참 어렵게 썼다고 생각하던 2003년에 「TV 책을 말한다」에서 이오덕 선생님의 <우리글 바로 쓰기>란 책을 알았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토씨를 쓰지 않고 남의 토씨를 쓰는 까닭에 쉬운 말도 어려운 말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 ‘우리말 우리얼’ 회비 보내실 곳

우체국 300731-01-001609 이정우(이오덕학교)

- 1권에 3,700원. 1년에 6부가 만들어집니다. -

우리말우리얼 구독료 : 1년마다 22,000원 입니다.

우리말우리얼 누리집 : <http://cafe.daum.net/malel>

우리말  
우리열

제  
92  
호

2  
0  
1  
7  
년

4  
월  
호

우리말  
살리는  
겨레  
모임